

# 2010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 일시 : 2010. 12. 3(금)
- 장소 :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대강당
- 주제 : 학교 통일교육 내실화 방안
- 주최 : 통일부 통일교육원, 인천광역시교육청

 통일부 통일교육원

 인천광역시교육청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 주제 : 학교 통일교육 내실화 방안
- 일시 : 2010. 12. 3(금), 14:00~17:00
- 장소 :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대강당

### □ 세부 진행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30	30분	○ 등록	▶ 인천광역시교육청
14:30-14:40	10분	○ 개회 및 국민의례 ○ 인사말(통일교육원) ○ 축사(인천교육청)	▶ 진행 : 인천광역시교육청
14:40-15:30	50분	○ 특강 - 정부의 대북정책과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	▶ 통일교육원 - 이미경 교수
15:30-15:40	10분	○ 휴식	
15:40-17:00	80분	○ 워크숍 - 발제 I, 발제 II  - 토론 및 질의응답	▶ 사회자 : 박윤국 교장(부평고) ▶ 발표자 - 이은규(인천효성고 교사) - 김향희(인천논현중 교사)  ▶ 토론자 - 강병숙(인천마장초 교사) - 오미숙(능허대중 교사) - 최남현(인천남동고 교사)
17:00		○ 폐회	
18:00-20:00	120분	○ 「통일대화의 광장」 간담회	▶ 통일교육원 - 교육청 관계자, 발제·토론자 등 참여



# 목 차

1. 특강자료	
정부의 대북정책과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 .....	7
이 미 경(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2. 발제자료 I	
미래 통일교육을 위한 제언 .....	25
이 은 규(인천효성고 교사)	
3. 발제자료 II	
탈북 학생 지도 사례 .....	49
김 향 희(인천논현중 교사)	
4. 토론자료 I	
초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 .....	77
강 병 숙(인천마장초 교사)	
5. 토론자료 II	
중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	91
오 미 숙(능허대중 교사)	
6. 토론자료 III	
고등학교 통일교육 및 탈북학생 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향 .....	103
최 남 현(인천남동고 교사)	





# 정부의 대북정책과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

이 미 경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 정부의 대북정책과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

이 미 경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basam@unikorea.go.kr

- I. 들어가며
- II. 정부의 대북정책
- III. 학교 통일교육 내실화 방향

## I. 들어가며

### 1. 학교 통일교육의 필요성

- 한반도 내외의 현황을 볼 때 통일문제는 관념상의 문제가 아닌 해결을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문제, 이에 대비하는 통일교육 요청
- 그러나 분단의 장기화에 따라 통일의 과정과 통일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비용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통일문제의 소극적·부정적인 인식이 대두
- 특히 통일 미래를 준비하고 이끌어갈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교육, 개인주의적인 성향 등으로 인해 통일문제에 무관심한 성향이 두드러짐.

- \* 지난 10년간('97~'08년) 중앙부처,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청소년 통일의식(통일관/대북관/안보관)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증가(통일의 관심이 '97년 71%→'08년 57%; 통일의 필요성은 '97년 85%→'08년 68%)와 북한에 대한 이해, 인지도는 감소한 반면 북한주민에 대한 무관심은 증가(북한인지도는 '02년 37%→'08년 18%; 북한주민에 대한 무관심은 '04년 12%→'08년 27%)

한편 안보의식이 약화됨과 동시에 안보현실에 대한 인식적 혼란이 존재('08.6 조사에서 6.25전쟁 발발연도를 아는 청소년은 43%, 6.25를 남침으로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은 49%차지)

- 이런 점에서 학교통일교육은 청소년들의 통일문제 관심제고와 올바른 통일 의식을 고취시켜 통일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실천의지와 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 2. 학교 통일교육 내실화

- 현행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대책 마련
- 청소년들의 통일문제 관심제고 및 올바른 통일의식 고취를 목표로 청소년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 한편 청소년 통일교육의 중심인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지원 등 학교 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확립
  -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도 교육청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학교 관리자와 일선 교사 등 학교통일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일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통일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
  - \* 2009.10.19 통일교육지원법 일부 개정하여 통일교육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확보할 수 있는 토대 구축, 통일교육 전문 강사과정 개설, 통일교육위원 운영 등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 \*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법 8조 개정)

## 3. 정부의 통일교육 방향

- 통일교육의 방향은 어떤 통일을 지향하고 통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바람직한 통일과 바람직한 통일한국사회의 미래상에 대한 구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정부의 통일교육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행하고 이를 추진 한다.”(헌법 4조)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

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 함양”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제1항) 등 헌법의 정신과 통일교육지원법에 명시된 통일교육 목표에 보다 충실하여 평화통일 의식을 함양하면서 ‘미래지향적 통일관’, ‘균형 있는 북한관’, ‘건전한 안보관’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내용과 체계를 보완

## Ⅱ. 정부의 대북정책

### 1. 상생공영 정책

#### 가. 비전

-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발전을 통해
  - ①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그리고 긴장완화를 실현하여 ‘평화공동체’를 건설하고
  - ② 북한의 발전과 국제사회의 참여를 돕고,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이룩하며
  - ③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남북 7천만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고자 함.
-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 확충 기여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 화해와 협력, 평화공존, 점진적 통일 지향

#### 나. 추진 원칙

- 실용과 생산성
  - △국민적 동의, △비용대비 성과,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북한의 발전을 촉진, △평화통일 기여 등을 염두에 두면서 정책추진
- 원칙에는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
  - 북 핵 폐기라는 원칙은 견지하되 이를 위한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유연하게 대처

- 남북대화는 원칙을 지키고 성과를 거두는 방향에서 남북한에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
- 국민적 합의
  -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투명한 정책 추진
-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
  -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의 조화로운 진전과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남북관계 발전 지향

#### 다. 추진방향 및 과제(2010년 대북정책 방향 및 중점추진 과제)

- 원칙 있는 남북관계 발전 추구
  -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본질적 문제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획기적 전환점 마련
  - 북한방문·체류 우리 국민보호를 최우선으로 제도적 신변안전 보장 마련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부합하면서, 투명하고 질서 있는 남북교류 협력 체계 구축
- 생산적 인도주의 실현
  -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창의적 방안 마련
  -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지원을 통해 효과성 제고
  - 일자리 중심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체계 강화
- 미래준비 통일역량 강화
  - 정세변화에 대비, 북한정보 수집 및 정세분석 능력 확충

- 「선진민주 통일국가」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국민의지 결집 및 미래세대를 위한 통일교육 강화
-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조성
- 남북 공동의 그린(Green) 한반도 구현을 통한 국격 제고·미래 준비

## 2. 비핵·개방·3000과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 <비핵·개방·3000>

- 남북 간 상생·공영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
    - 이는 북한에게 핵 포기 시 얻게 될 혜택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핵 폐기를 유도하는 전략적 방안
    - 북한을 폐쇄와 고립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발전과 한반도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구상
    - 즉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과 경제공동체라는 ‘큰 얼개’를 바탕으로 상호협력과 인도주의에 입각해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미래의 청사진
  - 북핵문제 진전에 따라 대북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 5대 중점 프로젝트(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 추진
    - 10년 내 1인당 북한주민 소득 3,000달러 경제 실현
- \*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는 중산층의 성장을 의미, 통일시 비용과 사회적 충격을 흡수하는 평화통일의 토대 가능

###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은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기간 중 미국 외교협회 연설(2009.9.23)을 통해 밝힌 것으로, 한반도 신 평화구상의 연장선 상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지향점을 제시

-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폐기와 동시에 북한에 대한 확실한 안전보장과 국제지원을 본격화하여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일관타결안임.
-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실현과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구상이자 근원적 처방으로 '한반도 신평화 구상'을 제시하였음.
- 북한의 핵을 폐기하고 재래식 무기 감축으로 상호 신뢰 구축, 북한이 핵 포기 결심을 보여준다면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

### 3. 통일미래 비전

- 통일정책의 기초
  - 헌법 제 4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규정
- 정부의 통일방안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1989년 초당적 합의와 폭넓은 국민합의에 바탕 한 통일방안 마련
  - \* 연혁
    - 1989년 노태우정부에서 국민적 합의로 마련, 1994년 문민정부에서 일부 보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도 공식 통일방안으로 승계
  - \* 주요 내용
    - 통일원칙 : 민주, 평화, 자주
    - 통일과정 :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완성」의 3단계 과정
    - 통일국가 형태 :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 통일국가 미래상 : 자유, 복지, 인간존엄성이 구현되는 자유민주주의국가
- 21세기 한반도 통일비전
  - 21세기 국가비전은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건설
    - \* 최근 한반도 동향은 '더 큰 대한민국' 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단계
  - 대한민국 역사는 '건국→산업화→민주화'를 성공적으로 달성

- 선진화를 통해 더 큰 대한민국을 창출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 통일은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할 중요 과제
- 남북이 협력을 넘어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통합되어 경제성장의 돌파구 마련, 남과 북이 공존·공영할 수 있는 통일 필요
- 통일추진 구상을 현실적으로 체계화 : 소극적 분단관리에서 적극적 통일준비로

\*\* 통일대비 인적, 물적, 정책적 역량 강화 필요  
(중장기적 통일준비와 과정, 자원 마련 - 통일세 등)

\*\*\* 평화, 경제, 민족공동체 등 3대 공동체 통일구상: 2010.8.15 경축사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계승, 발전 추구)

### <3대 공동체 통일구상>

평화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대화와 교류, 북한 변화유도, 평화분위기 확산</li> <li>○ 그랜드바겐(GB)을 통한 비핵화, 핵무기 없는 한반도 구현</li> </ul>
경제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성공단 등 남북교류협력의 포괄적 확대와 발전</li> <li>○ 비핵·개방·3000의 본격 가동,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li> <li>○ 국제사회의 협조, 북한 경제 발전, 남북 경제통합 준비</li> </ul>
민족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인권개선, 민족동질성 회복, 통일을 위한 법과 제도의 통합을 통해 상생 공영의 남북관계 완성</li> <li>○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기본권, 자유와 복지를 보장하는 단일 민족공동체의 구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적 분단관리 → 적극적인 통일미래 준비</li> <li>○ 통일세 등 자원마련 방안을 위한 논의 제안(통일세 TF 가동)</li> </ul>	

## Ⅲ. 학교 통일교육 내실화 방향

### 1. 학교 통일교육 실태 및 문제점

가. 청소년들의 통일문제 관심 및 인식 부족

-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 경향과 부정적 인식 증가
  - 지난 10년('97~'08)간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변화추이를 볼 때 통일의 관심이 '97년 71%→'08년 57%, 통일의 필요성은 '97년 85%→'08년 68%로 점차 감소('09년 11-12월 조사, 통일문제 관심은 52.6%, 통일의 필요성 70.3% 응답)<sup>2)</sup>
- 북한에 대한 이해·인지도는 감소, 북한주민에 대한 무관심은 증가
  -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북한을 '협력의 대상', '한민족'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북한에 대한 이해도 및 북한주민에 대한 관심은 이에 비례하지 않음. (북한 인지도는 '02년 37%→'08년 18%로 북한주민에 대한 무관심은 '04년 12%→'08년 27%)<sup>3)</sup>
- 안보의식이 약화됨과 동시에 안보현실에 대한 인식적 혼란 존재
  - 안보위협국과 협력국에 대한 객관적 인지 및 안보현실에 대한 이해부족 ('08.6 조사에서 6.25전쟁발발연도를 아는 청소년은 43%, 6.25를 남침으로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은 49%차지)<sup>4)</sup>
  - 청소년들은 안보협력국과 위협국으로서 미국을 동시 1위로 인식('08.6조사)

## 나.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약화

- 통일교육 교과목 편성 및 시수의 부족
  - 통일교육 관련 교과내용이 도덕·윤리과목에 치중되고, 통일교육은 연 평균 약 6.5시간 실시('08년 시·도교육청 협조 조사)

\* 현행 교육과정 중 통일교육 편성시간은 연간 평균 초등 10시간, 중등 12시간, 고등 17시간

- 
- 1) '07~'08년 중앙부처,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청소년 통일의식(통일관/대북관/안보관) 관련 설문조사 통계를 종합 분석한 결과.
  - 2) '09. 11.13~12.4 까지 전국 중·고교 재학생 1,083명을 대상으로 통일교육협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시행된 조사에서 응답자의 52.6%는 통일과 북한문제에 관심 있다고 답한 반면 47.4% 관심 없다고 응답. 통일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70.3%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필요 없다는 29.7% 응답
  - 3) 청소년 상당수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08.11조사, 74%)하며 북한주민에 대해서도 한민족이라는 인식이 다수('08.11조사, 81%). 그러나 청소년들 상당수는 북한을 불신('07, '08조사, 70%). 한편 청소년들은 북한체제에 비해 북한주민에 대한 호감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09.11~12 조사에서, 북한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 66.7%가 부정적으로 답했으나 북한주민에 대해서는 48.6%가 호감이 간다고 응답)
  - 4) '09.11~12월 조사에서는 73.4%가 6.25발발 시기를 인지



- \* '09.12 학교 자율화·다양화·특성화 정책추진 일환으로 미래형 교과과정 최종 확정 ('11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준비된 학교는 '10년부터 적용가능)→ 교과 내 통일 교육이 더욱 축소 우려5)
- 통일관련 내용이 대부분 마지막 단원에 편성되어 있어 교육이 생략되거나 소홀히 취급
- 수능시험에서 통일관련 문항 출제빈도가 낮아 학습동기 저하
- 통일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 저하
  - 영재·수학·과학 등 특정 과목에 승진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일부에서는 통일교육을 편향적인 이념교육으로 오해
- 교사들의 통일교육 연수 부족
  - 통일교육원에서 매년 교사 초청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 여건상 일정 인원(연간 600~700명)에 한해 교육 실시
  - 각 시·도교육청에서 매년 교사 연수과정(시·도별 통상 연간 30~60여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교육청에서만 통일교육 직무연수 실시
- 교과서 중심의 교육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 저하
  - 판문점, 전적지 등 다양한 통일·안보 체험학습 기회 부족

#### 다. 청소년 통일교육 시스템 미비

- 학교·사회에서의 청소년 통일교육 장려, 담당교사들에게 인센티브 부여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장치 미흡

---

5)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현행 10년에서 9년으로 단축하고 학년 군 도입, 이에 따라 고교 1학년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도덕 등 기존 고교 1학년 공통필수과목들이 선택과정으로 전환, 향후 각급 학교에서 국·영·수 몰입교육위해 도덕·사회를 중1·고1에 집중 이수 및 20% 감축 운영할 경우 동 교과 내 통일교육이 더욱 축소 우려, 특히 기존 고교 1학년 필수과목이던 도덕이 사회교과군 내 선택과목으로 전환되면서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방법에 따라 교육과정에서 배제 가능

## 2. 학교 통일교육 기본방향

- 청소년들에게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가치관 확립
  - △통일의 당위성·통일국가의 미래상,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기반 조성,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 이해 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 실시
- 청소년 통일교육의 중심인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 실시
  - 통일관련 교과목·시간 편성 확대 및 다양한 학습활동 실시
  - 통일문제 관련 다양한 자료 활용
- 청소년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관계자 대상 교육 강화
  - 통일교육 담당교사, 장학사, 교장·교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통일교육 기회 증대
    - \* '09년 한 해 동안 교장·교감 등 학교관리자 대상 초청연수(8회, 505명), 학교관리자 대상 지역별 '통일강좌'(3회, 1,720명), 통일교육 교사 워크숍(2회) 개최, 통일교육 담당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학교운영 책임자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 제고 계기 마련
- 청소년 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 시스템 강화
  - 통일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학교와 지역사회 통일교육 관련 기관 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 청소년 통일교육 관련 법·제도·예산의 확충
    - \* 2009.10.19 통일교육지원법 일부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학교 통일교육 진흥 등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 이 중 학교 통일교육 진흥 조항(법 8조)을 보다 구체화하여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 3. 학교 통일교육의 내용

- 통일교육은 통일을 이루는데 필요한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함으로써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 이를 위해 통일과정에 대한 대비(통일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갈등 및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 사회문화 형성 요구)만이 아니라 통일 후 남북 간 통합과정(이질화 극복과 통합방안 마련 등) 등에 초점을 두고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통일교육의 내용은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국민의 가치관과 태도 함양을 위해 ① 통일 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와 판단능력 배양, ② 통일의 필요성 인식과 통일의지 확립, ③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한 이질성 극복, ④ 남북관계의 이중성 및 안보와 통일의 균형적 인식, ⑤ 통일국가에 대한 가치관 정립, ⑥ 통일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인 통일준비 등을 목표로 구성

#### 가. 통일문제의 이해

##### 1) 통일문제의 성격

- 통일문제는 민족 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이중성을 지님.
- 통일은 주체적 조건으로서 통일역량의 강화와 객관적조건으로서의 통일 환경의조성이 지속적으로 준비될 때 가능

##### 2) 통일의 필요성

- 우리는 왜 통일을 원하는가, 현실적으로 통일은 어떤 변화(국가, 사회적/국제적/개인적 차원에서) 를 가져올 것인가 등에 주목하여 접근
- 민족적, 당위적 차원의 접근법은 설득력이 없음(당위적, 인도적 차원이 아닌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

- 청소년들은 성인들의 한민족의식, 전쟁위협 해소 같은 관점에서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것과 달리 개인과 한반도(국가, 사회) 미래의 경제적 실리 창출, 비즈니스 기회 확보 등과 같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필요성과 관점에서 통일문제를 인식

\* '09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국력강화(28.4%)가 이산가족문제 해결(24.7%), 한민족(24.6%) 보다 앞섬.

### 3) 통일의 내용(통일의 접근방식 및 통일국가의 미래상)

- 통일은 남북한이 상호 적대적인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여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
- 통일은 대화와 협상 등 평화적인 방식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접근방식), 민족구성원 모두 자유와 복지를 보장하며 통일의 결실을 공유하는 진정한 민족공동체가 실현되는 통일한국 구상(통일국가 미래상)

\*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한이 우선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형성한 바탕 위에서, 민족공동체를 건설해 가면서 정치통합을 이룩하는 방안

\* 통일한국의 비전과 과제 제시

- 통일한국은 7천만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선진 민주복지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위상 고양과 이에 부응하는 역할 수행
- 통일실현을 위해 우호적인 대외적 통일 환경 조성(통일한국의 역할 제시, 통일한국의 부상 우려 불식 등)과 남북한 내부의 통일 환경 조성 및 남북관계 개선(자유민주주의의 토대 공고화, 다원적이며 개방된 사회, 문화제도 성숙, 안정된 경제적 기반 구축, 북한의 개혁개방 등) 과제 수행

## 나. 북한 이해

### 1) 북한관

- 분단을 해소하고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필요

-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전반적 실상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
- 북한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중적인 존재
  - 북한은 통일을 위한 화해협력의 대상임과 동시에 경계의 대상
  - 북한은 대립과 갈등의 대상(국가안보주의적인 시각)이면서 동시에 공존공영의 대상(민족우선의 시각)

## 2) 북한사회 전반에 관한 이해

- 북한사회에 대한 객관적, 균형적 인식이 필요
  - 객관적인 이해가 중요하나 객관성확보의 문제(객관적인 자료와 내용 확보 문제)
  -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는 드러난 현상들이 어떻게 야기됐는지에 대한 북한의 특성 즉 북한 적 현상과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북한을 둘러싼 환경도 함께 고려해야 함.
  - 따라서 북한사회의 전반적인 작동원리를 이해하게 하고 객관적인 사실 전달에 초점을 맞춘 교육 실시
- 북한사회의 이해는 특히 청소년들의 관심분야 중심으로
  -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의식 관련 각종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북한의 실상은 북한주민의 생활상과 북한청소년 관련사항, 북한교육 등
  -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측면보다 현실적이고 학생들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사안 즉 북한의 사회·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

## 4. 학교 통일교육의 방식

### 가. 대상별 맞춤방식

- 청소년들의 수준, 관심 등에 맞는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청소년들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새로운 교수방법과 학습기법을 다양하게 개발 활용, 예컨대 같은 내용이라도 대상의 수준과 관심에 따라 교수방법을 다르게 함.
- \* 미디어세대인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IPTV를 활용한 통일교육 추진, 이를 위해 '10년 전국 24만개 학급에 구축될 '맞춤형 IPTV 교육서버'에 탑재할 다양한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예정

#### 나. 흥미유발, 참여위주의 방식

-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소재 중심으로 강의 중심(주입식)교육에서 탈피, 흥미유발의 교육내용과 방법 개발
  - 통일문제를 현실적인 삶과 연관, 실용주의적인 접근에 기초
  - 북한에 대한 관심은 주로 북한주민들의 문화나 생활에 집중
  - 토론을 통해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함으로써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과정과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전자 통신매체-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보급하는 것.
  - 북한과 통일문제를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야 할 것임.(체험학습, 현장학습 활동 등)
  - \* 다양한 체험·참여형 통일교육 모델 개발·제공, 09년 한 해 동안 서울지역 22개 학교(4,84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통일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전국 32개 학교(7,784명)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을 실시
  - 이탈주민 만남, 비디오, 영화, 교육방송 등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북한 이해교육
-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방법
  - 사료를 제시하고 그 사료를 토대로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수업

### 5. 학교 통일교육의 과제

- 입시위주의 교과 과정이 운영되는 현실에서 입시교육과 통일교육의 연계 혹은 병행가능성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며 다음의 과제들을 수행해야 할 것임.

## 가. 통일교육의 범 교과화

- 통일 관련 교과목 개편 및 교육시간 증대
  - 국어·역사·지리 등 범교과적으로 통일교육을 확산하고, 학교에서의 최저 통일교육 시간 설정 추진
- 특별활동이나 학교행사, 단체 수련 활동을 통해 다양한 통일교육 실시
  - 이를 위해 교원연수원과 청소년 단체, 시민사회단체에 위탁교육을 통해 통일교육 실시

## 나. 교사, 교육행정 종사자들의 통일의식 제고

- 예산지원이나 통일교육 계획 등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장과 교육행정직에 대한 교육 실시
  - 교장·교감·장학사·연구관·교육위원 등 교육관계 전문가 대상 통일교육 기회 확대

## 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교수, 학습 자료

- 정규 편성된 교과내용과 시간만으로 통일교육이 어려움, 통일반과 같은 특별 활동 영역의 개발이 필요
-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의 개발·활용
  -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효과가 높은 청소년 친화형 멀티 미디어 자료

<끝>







## 미래 통일교육을 위한 제언

이 은 규  
인천효성고등학교 교사





# 미래 통일교육을 위한 제언

이 은 규(인천효성고등학교 교사)

- I. 들어가는 말
- II. 통일교육의 방향
- III. 미래 통일교육의 이론적 기초
- IV. 내러티브 기법을 활용한 미래 통일교육 방법
- V. 맺는 말

## I. 들어가는 말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이 2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편견이 여전해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이 지난 11월 11일 2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날 현재 20,500여 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한반도의 내외적인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의 통일교육에 대한 고민을 강제하고 있다. 북한이탈 주민의 급증은 한반도에 통일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음은 당연하다. 즉, 북한이탈 주민들이 급증하는 사례로 비추어 볼 때 북한체제가 가진 체제유지 동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체제가 과연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체제 내구력에 의문을 갖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방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요청되고 있다. 통일 이전의 교육에서 이제는 통일 이후의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2025년 무렵 한반도는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통일국가는 아니라 해도, 모종의 남북연합이 탄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종식시키려는 외교적 활동은 지속되겠지만, 통일되는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북한의 핵 기반시설 및 핵 능력이 어떤 상태일지는 미지수이다. 그리고 새로운 통일 한반도는 재건에 드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에 시달릴 것이므로, 우크라이나가 1991년 이후 그랬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하는 대가로 국제적 수용과

경제적 지원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로 인해 또 다른 전략적 결과들이 빚어질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로 비핵화, 비군사화, 난민 유입, 경제재건 등 새롭고 끈질긴 도전들에 대처하고자 주요 강대국들이 새로운 수준에서 협력할 것인지가 주요 이슈로 될 것이다.”<sup>1)</sup>

미국의 정보위원회에서도 한반도는 2025년 이후 어떤 방식으로든 통일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15년 이후엔 한반도에 통일이 된다는 것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없이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양산될 것이다. 이념적 갈등뿐만 아니라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 ‘가난한 오씨와 거만한 베씨’<sup>2)</sup>라는 형태의 감정적 대립 양상도 나타날 것이며, 동시에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적 계층적 대립이 심각해 질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되었을 때의 현실적 혼란은 상상하기 쉽지 않다.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통일 이후의 교육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당연히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 II. 미래 통일교육의 목표 및 방향

### 1. 목 표

미래의 통일교육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강고한 터전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대체로 현재의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이러한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 통일교육은 그 실천과 현실적인 의미에서 있어서 그리 밝은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앞으로 통일의 미래를 준비하고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통일관을 심어 주는 통일교육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최근 실시된 여러 가지 조사결과를 보면, ‘통일문제에 대해 관심 없다’라고 대답한 청소년들의 비율이 거의

1) 글로벌트렌드 2525, 제5장. 미국정보위원회, 2009.

2) 2005. 11. 2일자 방영된 KBS 스페셜의 제목

과반수에 이르고 있다.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인식이 부족한 이유로는 입시 위주의 교육현실, 현장 교육운영 지도자들의 통일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국가·사회에서의 청소년 통일교육에 대한 지원 미흡, 객관적이면서 유익한 내용의 교육자료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교육과정 편성 상 중·고등학교 단계는 논리적이고 추상적이며 체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기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의 통일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통일·북한관련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기초하여 통일문제를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테면 통일교육에서는 안보의 중요성, 외국의 통일사례, 우리나라 역사 속의 통일사례, 현재 우리나라의 통일노력, 남북분단의 원인과 폐해, 분단의 역사적 전개과정, 북한의 지배체제, 이데올로기 및 사회·경제·문화·교육 분야의 주요 특징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많은 경우 통일의 필요성을 개인적 차원은 물론, 민족사적, 인도적, 국제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독일, 베트남, 예멘 등 과거 분단국의 통일사례 연구를 통해 통일준비 방법, 바람직한 통일국가상 등을 탐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통일교육은 다원주의와 민족공동체의 복원이라는 두 가지 가치들을 되살리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개개인의 신념과 가치, 인간 존엄성이 전제가 되고, 모두 더불어 살아가는 매력과 관용의 정신이 반영되고 실천되는 공공정신이 기반이 되는 사회를 목표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원주의적 가치에 대한 강조와 공동체의식의 실질적 확장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치들이 변증법적으로 통합되고 융합되어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삶의 가치를 어울림에 두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관행화하는 자세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을 통해 단순한 영토적 통합으로 지금도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예멘의 사례를 뛰어넘을 수 있고, 동서 독일의 주민간의 반목과 시기,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독일의 통일사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방 향

우선 미래 통일교육의 방향으로 먼저 거론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관점이다. 열린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주의와 다양한 가치관의 통합

을 위한 다문화주의가 그것들이다. 이 두 관점은 통합된 이후 교육과정의 내용 속에 그대로 용해되어 미래 세대를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이 되어야 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동체주의를 통해 통합의 당위성이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당위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며, 그것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 하나로 통합되었음을 강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다문화주의적 관점에 의해 다양성을 통합할 정신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통합되었을 당시에는 곧 바로 남과 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의 통합까지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이질성을 최소화하고, 상호 인정의 커다란 의식적 틀을 구성하여 접근함으로써 차이의 최소화에 기초한 진정한 의식적 통합이 가능하리라 믿기 때문이다.

#### 가. 공동체주의(共同體主義)와 미래 통일교육

공동체는 공동체의식 또는 일체감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공동체 의식이란, 그 구성원들이 스스로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집단에 속해 있다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공동체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면, 한 마을조차 공동체가 되기 어렵고, 반대로 공동체의식이 있다면, 세계 전체가 공동체의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공동체의식은 공동체의 개념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이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일체감'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감정', '역할 정', '의존감정'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개인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고,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더라도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과 헌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즉, 단순히 개인 자신의 입장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볼 줄 알고, 한편 공동체 만능주의의 한계를 인식하여 공동체와 개인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과 갈등 및 대립관계를 이해하고 분석할 줄 안다는 것이다. 물론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했을 때 '정체성 형성'이나 '소속감 형성'을 전제로 한다. 이를 통해 개인들은 자신을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공동체는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범주의 여러 종류의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중첩적으로 다양한 공동체에 소속되며, 그곳에서는 각 행위자에게

각기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생활 속에서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문제는 부과된 다양한 의무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다는 사실<sup>3)</sup>이다. 왈쩌가 보기에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공동체들의 위계를 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다양한 공동체가 부과하는 의무의 수행을 통해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개인의 입장에서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다. 그의 입장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정리될 수 있다.

우리가 통일과 통일 이후의 사회에 대한 비전을 말하고자 할 때, 먼저 공동체와 국가가 개인의 생존과 자아실현에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전제하고 논리를 전개해야 한다. 이를테면, 공동체와 국가를 위한 희생의 필요성을 자각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발전과 나라발전이 균형 있게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존을 위한 논리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공존 논리의 확대를 통해 우리는 구성원들의 헌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나. 다문화주의(多文化主義)와 미래 통일교육

일찍이 고대 로마의 카이사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판단하고 싶은 방식만 생각한다.’<sup>4)</sup>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이유는 인간 삶의 다원성으로 인한 것이다. 그는 인간의 삶이 그 모습에서 다양하며, 새로운 방향을 추구하려는 경향성이 짙다고 보았으며, 결국 인간의 삶이나 모습이 백인백색(百人百色)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여러 문화를 상호 존중한다는 이론이자 정책이고 또 이념이며 실천이다. 문화의 다양성(diversity)과 복수성(plurality)을 뜻하기도 한다. 다문화주의의 반대는 단문화주의 또는 단일문화주의로서, 근대 이전에는 대다수의 국가와 사회가 단일 문화였기 때문에 다문화주의와 같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상호 존중과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자는 이념이다. 이 용어는 호주, 뉴질랜드 등과 같은 다민족, 다 종교 국가에서 인종 간의 충돌을 완화하고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개념이다.

3) 왈쩌, 「민주주의적 평등」 중에서 발췌 요약.

4)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중에서

다문화주의의 사회통합 모델은 용광로, 샐러드 그릇, 국수대접 모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용광로 모형을 살펴보자. 용광로에 들어간 여러 광석은 녹고 섞여 한 덩어리가 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한다. 용광로에 들어간 구리, 주석, 납, 아연 등은 서로 어울려 단단한 금속으로 변모하기도 하고 녹이 슬지 않는 금속으로 재탄생하기도 한다. ‘한민족’은 물론 이주 노동자, 이주 여성과 그 자녀들 모두가 용광로에 들어가 함께 녹아들고 섞여 더 강하고 쓸모가 있는 한 덩어리의 쇠붙이로 거듭나며 불순물은 제거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치를 모든 이주민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주입받으며,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간주하는 모형이다. 이것은 각 인종 혹은 종족 간의 차이를 강조하기 보다는 ‘하나의 미국, 하나 된 국가’라는 이미지의 강조를 위해 채용한 것이다. 초기 개척자들에 의해 건설된 ‘자유의 수호자로서의 미국, 혹은 기회의 땅 미국’이라는 슬로건에 맞춰 모든 사람들이 동등성을 부여받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샐러드는 생야채나 과일을 주재료로 하여 마요네즈나 프렌치드레싱 따위의 소스로 버무린 음식이다. 샐러드 속에 들어 있는 생야채나 과일은 그 본연의 모습, 맛, 향을 유지하며 소스와 어우러져 맛깔스러운 음식으로 재탄생한다. ‘한민족’은 물론 이주 노동자, 이주 여성과 그 자녀들이 대등한 자격으로 각각의 정체성을 공고히 유지하면서 공존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수는 갖가지 재료로 우려 낸 국물에 밀가루로 만든 국수를 삶아 넣고 고명을 얹은 음식이다. 쫄깃한 국수의 씹는 맛, 국물의 깊고 시원한 맛이 주를 이루고 여기에 갖가지 고명이 얹혀 입맛을 돋운다. ‘한민족’은 국수와 국물이 되어 주류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이주민은 색다른 맛을 더해주는 고명이 되어 자존감이 살아 있는 비주류로서 공존하는 가운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것은 주류/비주류의 구분이 있기는 하지만 위의 두 모형보다 소수자 집단이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소수집단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다문화주의 모형이 있지만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미래의 통일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성만을 강조할 경우 오히려 통합을 위한 교육의 본질적인 내용이 손상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주의와 결합하여 그 장점만을 추출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 Ⅲ. 내러티브 기법을 활용한 미래 통일교육의 방법

미래 통일교육을 거론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앞에서 거론한 다문화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내용들을 어떤 모형에 담아내느냐의 문제이다. 대체로 이 둘의 내용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데 고민이 있다. 그러나 둘 모두 인간의 삶에 대해 말하고 있다. 아니 흔히 말하듯 인간의 삶에 녹아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감성적 일치를 전제로 그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다. 정확한 인과관계에 따라 파악되어지는 단순한 플롯의 구성이 아닌 마음을 통해 생각되고 그것이 감성이라는 통로를 통해 표현되는 공동체문화에 기초한 감정적 자아를 다루고 있다는 것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공동체주의 관점과 다문화주의 관점의 융합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이 둘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는 틀이 있어야 하는데, 내러티브 기법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 1. 내러티브란 무엇인가?

내러티브란 '이야기 혹은 설화'로 설명될 수 있다. 이야기에는 우리 겨레의 공통의 경험이나 삶의 원형이 들어가 있다. 또한 이야기에는 경험이나 삶의 원형을 표현하기 위한 문화적 제 모습들이 표현되어 있다. 서양에서는 호머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서 채용하는 형식인 서사적 구조를 갖는 이야기를 의미하고 있다. 우리에게서 고구려 건국을 다루고 있는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이에 해당된다.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위대한 영웅들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민중 속에서 창조되었는데, 그 내용 속에 어느 한 민족의 삶의 원형이나 삶의 방식, 그리고 문화에 기초한 사고 방식 등이 녹아져 있다.

#### 2. 정체성 형성 방법으로서 내러티브적 사고

##### 가. 자아 형성과 사고 유형

인간의 집단적이거나 개별적인 경험을 이해하는 데, 이야기로서 내러티브가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한다면 어떤 기능에 의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 그러한 정신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간의 주체성이나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가? 자아 개념의 형성으로서 경험이란 어떤 의미에서 개별적이긴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개인이 속한 집단에서 상당부분 연유된다는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내러티브적 사고는 옛날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직접 들려준 어떤 좋은 것에 대한 이야기나 관심을 끌 수 있는 드라마, 믿을 만한 역사적 언급에 의해 창출된다. 즉, 그것은 특정한 인간의 경험에 관심을 두며, 그러한 경험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함으로써 그 이야기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동일시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공간, 인물, 생각과 자신의 그것들을 일치시키고, 그것을 통해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야기' 속에 들어 있는 정신과 문화는 단순한 메시지가 현실 생활의 다양한 관점들과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지와 생각이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육의 방법론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야기'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그것이 발생한 조건과 상황, 그것이 사용되는 문맥을 깊이 있게 천착해야 하는데, 미래의 통일교육에도 맥락적 사고가 동시에 요청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특히 인간이 갖는 형이상학적, 선형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험적, 후천적 가치라고 보는 내러티브의 특성상 어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적 상황'을 통해 개별적인 가치로 전환되며, 개인의 감성적 관점이 내러티브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되어 가는가에 주목하면서 통일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 나. 공동체 문화와 '이야기'의 유기적 관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 자체가 인간의 의식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자아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선형적으로 규정된 실체라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에 붙박여서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과정적 존재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이 인간의 도덕성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인간의 도덕적 자아가 구성되어 나간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언어이다. 이야기는 언어의 원형적인 모습으로서 인간의 전체적인 삶의 일상성과 관련되어 있기에, 결국 사회·문화적 문맥과 도덕성 발달을 매개하는 언어(이야기)의 연관성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공동체의 문화는 언어를 매개로 한 인간관계의 설정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로 대표되는 언어의 기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야기는 그 속에 그 사회의 관습이나 관행 등 사회의 도덕적 기능을 전담하는 다양한 규범들을 내재화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는 그 사회를 유지시키거나 발전시키는 이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야기는 그러한 기능을 사회 전반에 걸쳐 행사하는 기초적인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에 주목하여 대화를 중시하는 교육 철학자들이 내러티브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 3. 이야기(내러티브) 기법의 통일교육에의 적용

#### 가. ‘이야기’내용 구조의 기본원리

이야기는 전통적으로 교육의 기법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였다. 도덕 교육은 물론이고 윤리교육의 소재로서 영웅들의 이야기와 민속 설화는 중요한 재료였다고 간주된다. 이러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구연, 즉 ‘이야기 말하기’라는 방법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학생들은 이러한 이야기에 직접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인격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들었던 내용들에 보다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학습 기법으로 인정되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 중심의 교육은 인격 교육이나 덕 교육에서 주도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통일교육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내러티브)’가 지니고 있는 장점은 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통일의 과정에서 나타난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지적 이해와 감정적 이해를 가능하게 해줌과 동시에,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준다.
- 둘째, 통일 과정에서 강조하는 덕목인 배려와 감정적 일체감에 대한 구체화된 감각을 얻을 수 있으며, 이야기 속의 주인공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각 개인의 수행할 수도 있는 모범적인 행동을 배우게 해준다.
- 셋째, 이야기 속에 나타난 행위자들의 행동을 통해 인간 삶의 다양한 실상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며, 심화시켜 준다.
- 넷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통일과 통합에 대한 감정적 민감성을 드높일 수 있다.

다섯째, 이야기에 제시된 다양한 모습을 지닌 삶에 대한 통찰력을 지닐 수 있게 한다.

여섯째, 구체적인 개인의 행동들을 올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모델들을 이해하고 각 개인의 심리 영역에 저장시켜 준다.<sup>5)</sup>

학생 중심의 이야기하기가 통일교육에서 활용될 때에는 무엇보다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통일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말하게 함으로써, 자신 스스로가 ‘이야기의 주체’가 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권위와 책임감이 표현되고 고양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이야기를 말하는 기회를 통하여 학생들은 경험의 인지·감정·행위적 측면을 구체화함으로써 자신의 관점에서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이 증가되며, 그렇게 됨으로써 통일 교육이 인지적 영역을 벗어나 정의적 영역과 행동적 차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 나. 통일교육과 ‘내러티브(이야기)’

교수 학습 방안으로서 이야기하기는 인간이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언어에 의존하는 한 가장 자연스럽게도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활동은 교재를 매개로 하여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이야기적 활동이 상호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교수학습 방안으로 이야기하기는 실제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즉, 이야기의 소재에 있어서 실제 사례와 가상적 사례, 긍정적 사례와 부정적 사례가 있으며, 이야기의 주체 면에서 학생주도와 교사주도, 그리고 이의 조합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sup>6)</sup>

이 중에서 통일교육 방법으로서의 내러티브가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교수 학습 원리는 학생주도의 개인적인 경험 이야기하기이다. 통일 이후의 한국 사회는 통일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집단적 체험을 경험하였을 것이며, 각 개인은 자기 삶의 이야기의 저자로서 자신의 개별적 관점에 의해 진행했던 경험들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의 ‘경험 이야기하기’는 내러티브 교수 학습 방안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것은 개인이

5) 박병기추병완, 『윤리학과 도덕교육』, (서울: 인간사랑, 1996), p. 176.

6)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창의력 신장을 돕는 중학교 도덕과 학습 평가 방법』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1998), pp. 30.

실생활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반성적으로 숙고하여 청중이나 대화 당사자들 앞에 제시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오는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항상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결단의 순간에 직면하게 된다. 그것이 사소한 것이든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중대한 도덕적 판단이 개입된 사건이든 우리의 삶 대부분은 경험으로 구성된 현실적 삶과 관련되어 있다. 각 개인이 이러한 다양한 삶의 경험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가장 간단하게는 구두 언어적 수단을 통해서 청중 앞에서 경험을 말하는 것이다.

개인의 직간접적 경험을 말한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경험들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구성함'으로써 과거 생활에 대한 반성과 미래생활에 대한 결의를 다지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할 수 있다. 학생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차원을 이야기 속에 통합함으로써 통일교육과 관련된 총체적인 경험을 갖게 된다. 특히 통일의 과정에서 살아 있는 자신의 고유한 경험들을 이야기로 구성함으로써 학생들은 스스로에게 구체적인 행동 실천을 위한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된다.<sup>7)</sup> 이렇게 함으로써 경험이나 체험 속에 이야기라는 형태로 들어 있는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현실에 접목시켜서 통일 이후 자신의 행동과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내러티브의 교수 학습 방법을 구체적인 수업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다. '이야기(내러티브)' 기법을 원용한 통일교육의 구체적인 사례

### 1) 다양한 경험을 발표하기

이것은 내러티브의 기본 교수학습 원리인 개인의 경험 이야기하기와 가장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학생이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반성적으로 숙고하여 다른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게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주로 수업의 도입부분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 학생들한테 미리 과제를 내주어 평소에 준비를 해서 자기 순서 때 발표를 하도록 시킨다. 발표내용과 시간을 가급적 지키도록 미리 환기시키는 것이 좋다. 발표내용은 학생들이 가정, 학교, 사회생활에서 부딪치는 통일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신문이나 TV 등의

7) 박병가추병원, 앞의 책, pp. 172-173.

방송매체나 잡지, 책을 통해서 접하는 통일과 관련된 가치 갈등 문제도 포함하도록 한다.

발표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글을 통해서 발표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발표 시간은 5분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통일과 관련된 문제들을 개인적 선행이나 악행과 같이 선악의 구도가 명확히 나누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범위를 넓혀서 사회구조적 문제나 통일과 관련된 가치 갈등 상황도 파악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방법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발표 내용뿐만 아니라 발표자와 청중간의 허용적 분위기이다.

아직 우리 교육의 학습풍토가 학습자가 발표를 하는데 익숙한 분위기가 아니기에, 발표자는 청중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한다. 특히, 발표 내용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허용적이고 공감적인 분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진실한 개인적 경험에 기초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렵다. 교사를 비롯하여 청중들은 발표자의 이야기를 비판하려거나 문제 삼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야기가 모두 끝나면 그 이후는 발표된 이야기의 성격에 맞게 교사가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 통일 교육과 관련된 갈등 상황이 개입된 문제이면 청중들과 함께 토론으로 이끌어 나갈 수도 있다. 혹시라도 발표자가 감정이 격앙되고 강하게 표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비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방법의 효과는 학생들이 통일교육과 관련된 일상적인 문제들을 인지·감정·행위의 총체적 모습으로 파악하도록 해주며, 숙고와 발표를 통한 자기 삶의 이야기의 저자로서 앞으로 진행될 자기 삶 속의 다양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 2) 영상 혹은 녹음을 활용한 구두 편지(oral letters)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녹음해 전달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적 느낌이나 경험을 감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기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녹음하거나 녹화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인쇄매체에 의한 편지가 전할 수 없는 더 강한 감동을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다.<sup>8)</sup> 이 방법은 통일의 과정 속에서 나타날지도 모를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상담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요즈음은 학생들이 교사와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상담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이다. 녹음이나 녹화의 방식을 이용하면 의의로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털어 놓을 수 있다. 교사가 구두 편지 방식으로 상담을 받으면 마찬가지로의 방식으로 응답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간접적인 이야기 방식이지만, 오히려 인쇄 매체가 담을 수 없는 경험의 포괄적인 면을 표현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시도해볼 만하다. 다만, 교사의 정성과 시간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다.

### 3) 극적인 모험하기

모험은 내러티브적 자아 구성에 있어서 특별히 잠재적 요소로 작용한다. 위험과 전율은 만족할만한 삶의 이야기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그것들은 불확실한 결과들을 통하여 변화와 신기함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위험한 사건들은, 이야기적 자아한테 요구되는 계속된 감정적 투자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극적인 모험의 기회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이야기적 소재로 작용할 수 있다. 여행이나 모험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일상성을 반추해볼 수가 있고 이것은 삶의 활력소로 작용한다. 이 방법은 극적인 모험이나 여행, 극기 수련회 등의 비일상적 경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법이다.

---

8)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앞의 책, p. 34.

#### 4. 내러티브 기법에 기초한 교수-학습 모형

##### 가. 수업 설계서

교과명	도덕·윤리	대상학년	1학년	대단원	Ⅱ-1. 민족분단과 남북한 사회 현실		
소단원	민족 분단의 과정			학습주제	분단의 현실 분단의 원인과 과정 분단의 고착화 과정		
차시	1-2/2	교재	유인물	적용모형	ICT활용 내러티브	교실환경	모둠학습 교실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단의 현실을 다양한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li> <li>○ 분단의 원인과 과정, 분단의 고착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li> <li>○ 분단의 현실과 관련 통일에 대한 의식을 확립할 수 있다.</li> </ul>						

교수·학습 활동 단계	교수·학습 활동 내용	ICT 활용 유형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자료
도입	<p><b>모둠 구성 및 교실 재배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둠(6-7명)별로 내러티브 집단 구성</li> <li>○ 교실 재배치</li> </ul> <p><b>사전 과제 - 모둠별 정보 수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단으로 인한 고통, 분단의 원인과 과정, 분단의 고착화 과정,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과 관련한 정보 수집</li> </ul> <p><b>도덕적 문제 상황 제시 및 동기유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단으로 인한 고통 - ‘북한에 보낸 영상 편지’ ‘조국의 이름으로- 북파공작원 Y’</li> <li>▶ 분단의 원인과 과정 - EBS 제작 「영상으로 여는 통일세상」 제 2편 ‘분단이 우리에게 남긴 것’</li> </ul>	정보탐색 및 분석	가치갈등 학습	VCD, DVD 영화, 사진자료, 인터넷 사이트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들의 통일관 : 설문조사 및 분석 자료</li> <li>· 학습목표 제시: PPT 자료를 통하여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li> </ul> <p><b>내러티브 관련 자료 수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모둠별 정보 분석과 정리</li> <li>○ 모둠별로 수집한 자료 분석하여 필요한 자료 종합 정리</li> </ul>	동영상 활용 정보탐색	내러티브 활용수업	



교수·학습 활동 단계	교수·학습 활동 내용	ICT 활용 유형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자료
<p style="text-align: center;">전개</p> <p style="text-align: center;">정리</p>	<p><b>쟁점화된 주제 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와 규범을 PPT자료로 제시한다.</li> <li>○ PPT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통일관 분석자료 제시</li> <li>○ 문제사태의 성격분석을 위하여 관련 사이트의 정보를 탐색하도록 하고 사례를 제시</li> </ul> <p><b>학습지에 기록하고 발표하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단으로 인한 고통에 대하여 느낀 점을 이야기하도록 한다.</li> <li>○ 남북 분단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동영상 관람과 관련한 학습지 작성, 모듈별 토의 후 정리한 내용을 이야기 하도록 한다.</li> </ul> <p><b>내면화하여 발표하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된 동영상 및 도덕적 문제상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거나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예상되는 결과를 작성하고 발표하도록 한다. PPT자료로 제시해 준다.</li> </ul> <p><b>입장 선택과 정당화 근거제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을 들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여 투표한다.</li> <li>○ 자신의 입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하고 어떤 가치가 우선하고 중요한 가치인가 파악한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 자기주장의 근거 제시</li> </ul> <p><b>입장 정리 및 평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하기</li> <li>○ 수업전과 후의 입장이 수정된 학생이 있는지 정리, 피드백 실시</li> </ul>		<p>가치갈등 학습</p> <p>내러티브 활용수업</p>	<p>VCD, DVD, 영화, 사진자료. 민족공동체 의식 관련 인터넷 사이트</p>

수업 준비	관련 내용 및 전략
수업 전 고려사항	<p>&lt;ICT 선수학습 능력&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웹 브라우저를 통하여 원하는 정보(텍스트, 사진, 동영상)를 검색할 수 있다.</li> <li>○ 필요한 정보를 복사하여 저장할 수 있다.</li> <li>○ 파워포인트(ppt)와 한글을 이용하여 발표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li> </ul> <p>&lt;평가 관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치갈등 상황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선택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고 있는가.</li> <li>○ 모듈별 탐구과정이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가.</li> <li>○ 모듈별 탐구활동 시 개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는가.</li> </ul> <p>&lt;교사의 사전 준비 사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미디어 자료를 준비한다. 「북한에 보낸 영상편지」, 「조국의 이름으로 - 북파공작원 Y」, EBS 제작 「영상으로 여는 통일세상」 제 2편 ‘분단이 우리에게 남긴 것’</li> <li>○ PPT 자료와 수업내용과 관련된 참고사이트 목록을 제시해 준다.</li> </ul>
수업 설계 전략	<p>&lt;동기 유발 전략&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에 보낸 영상편지」, 「조국의 이름으로- 북파공작원 Y」, EBS 제작 「영상으로 여는 통일세상」 제 2편 ‘분단이 우리에게 남긴 것’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이해하고, 남북분단의 원인과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올바른 통일관 확립과 관련한 학습내용과 학습자의 연계성을 높여 학습동기를 유발한다.</li> <li>○ 내러티브 수업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한다.</li> </ul> <p>&lt;상호작용 촉진 전략&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듈원들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사전에 자료를 수집하여 토론 수업의 효율성을 확보한다.</li> <li>○ 모듈 구성원 개개인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촉진시킨다.</li> </ul> <p>&lt;ICT 활용 전략&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를 활용한 에듀테인먼트 수업으로 학습자의 학습동기 유발</li> <li>○ 이메일을 활용하여 주제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깊이 있는 탐구와 이해력을 촉진시킨다.</li> <li>○ 웹 자원을 활용하여 모듈별 주제에 대한 인터넷 자료 수집, 분석과 정리를 통하여 정보 탐색 및 분석 능력을 촉진시킨다.</li> <li>○ 내러티브 수업을 통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능력을 기른다.</li> </ul>
수업설계의 주안점	<p>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한 내러티브 수업의 주제와 문제 사례를 제시하여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웹 자원 활용 전략을 통해 모듈별로 자료를 수집, 분석, 종합하는 능력, 도덕적 판단능력을 함양한다.</p>

나. 수업 과정안

주제명	분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차시	1-2/2	
지도 방법	시청각 매체 활용법	ICT활용 및 학습 자료	분단으로 인한 고통 - '북한에 보낸 영상편지' '조국의 이름으로- 북파공작원 Y'		
학습 모형	내러티브 기법 활용 수업 모형		분단의 원인과 과정 - EBS 제작 「영상으로 여는 통일세상」 제 2편 '분단이 우리에게 남긴 것'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단의 현실을 다양한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li> <li>○ 분단의 원인과 과정, 분단의 고착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li> <li>○ 분단의 현실과 관련 통일에 대한 의식을 확립할 수 있다.</li> </ul>				
단 계	학습 중점	교수 - 학습 활동 내용		시간	지도상 유의점
		교 사	학 생		
수업 준비 단계	모둠 구성 및 사전 과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단으로 인한 고통과 관련한 사전 과제를 제시한다.</li> <li>▶ 청소년의 통일관과 관련한 사전 과제를 제시한다.</li> <li>▶ 모둠별 주제에 맞는 역할 분담과 각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교실을 재배치한다.</li> <li>▶ 본 수업에서 제시할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IT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단으로 인한 고통과 관련한 자료를 사전에 조사한다.</li> <li>▶ 청소년의 통일관과 관련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해온다.</li> <li>▶ 내러티브 참가학생과 자료준비, 발표자, 기록자 그리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교실을 재배치하여 수업에 모두 참여한다.</li> <li>▶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본다.</li> </ul>	10	모든 학생들의 참여 유도, 미디어 자료 제시
도입	도덕적 문제 상황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에 보낸 영상편지' 자료를 제시한다.</li> <li>▶ '조국의 이름으로-북파공작원 Y' 동영상 자료를 보여준다.</li> <li>▶ 분단의 고통에 대한 생각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 목표와 주제를 PPT자료를 통해 설명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를 집중해서 본다.</li> <li>▶ 학생 자신의 견해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발표하도록 한다.</li> <li>▶ 모둠에 따라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학습목표에 대한 자료 설명을 들으면서 내용을 정리한다.</li> </ul>	15분	
전개1	도덕적 주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단의 원인과 과정 관련 학습지를 배부하고 동영상을 보여준다.</li> <li>- EBS 제작 「영상으로 여는 통일세상」 제 2편 '분단이 우리에게 남긴 것'</li> <li>◆ 남북 분단의 원인과 과정 동영상과 관련하여 통일에 대한 의식을 질문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영상 자료를 보면서 학습지에 기록한다.</li> <li>- 내용 기록 및 느낀 점 작성</li> <li>▶ 국가정체성, 민족 공동체 의식, 통일의 당위성과 관련된 내용을 PPT 자료를 보고 확인한다.</li> </ul>	5분	PPT 자료 제시

단 계	학습 중점	교수 - 학습 활동 내용		시간	지도상 유의점
		교 사	학 생		
전개2	주제 관련 규범 의 의미 파악	<p>◆ [발문]</p> <p>38선 분할의 원인은 무엇인가? 건국준비위원회의 역할 및 활동은? 미소분할 점령의 상태는? 미, 영, 소 한반도 독립 논의 결과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사항 및 이에 대한 대응은? 좌우합작운동의 전개 및 결과는? 한반도 문제 UN상정 과정과 의미는?</p> <p>▶ 학습지를 활용하여 제시하고 작성하도록 한다.</p> <p>◆ [발문]</p> <p>동영상 관련 바람직한 국가 정체성 확립의 자세는? 민족공동체 의식은 필요한가? 청소년들의 올바른 통일관은?</p>	<p>▶ 동영상 관련 학습지에 정리한 발문에 대한 답안 및 자신의 생각을 내러티브 모듈별로 정리한다.</p> <p>▶ 발문에 대하여 동영상 자료와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여 답변을 생각한다.</p>	10 분	인터넷 자료 탐색, 동영상 자료 제시
전개3	학습 지에 기록 하고 발표 하기	<p>내러티브 모듈별로 동영상 관련 된 사항을 발표하도록 한다.</p> <p>◆ [발문]</p> <p>▶ 분단의 가장 큰 책임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청소년으로서 통일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p>	<p>▶ 학습지를 활용하여 모듈별 토론 후 입장을 정리하고 발표한다.</p> <p>▶ PPT자료를 보면서 제시된 문제 사례의 성격을 명확하게 파악한다.</p>	20 분	허용적 분위기 조성
전개4	내면 화 하여 발표 하기	<p>◆ [발문]</p> <p>▶ 사전에 조사 과제였던 분단으로 인한 고통과 관련 주변의 경험을 이야기하자.(고통 공유)</p> <p>▶ 동영상과 관련 바람직한 국가 정체성을 자신의 입장에서 발표해 보도록 하자.</p> <p>▶ 민족공동체 의식은 어떠한 역할을 하며 왜 필요한지 동영상 관련 느낀 점을 토대로 발표해 보도록 하자.</p> <p>▶ 사전 과제를 보고 느낀 점을 토대로 바람직한 통일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발표해 보도록 하자.</p>	<p>▶ 선생님의 발문에 맞추어 자신의 입장에서 내면화하여 발표한다.</p> <p>▶ 모듈별로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한다.</p>	30 분	허용된 분위기 조성

단 계	학습 중점	교수·학습 활동 내용		시간	지도상 유의점
		교 사	학 생		
전개5	입장 선택 과 정당 화	<p>◆ [발문]</p> <p>▶ 어떤 학생의 발표가 제일 좋았다고 생각하는가?(거수 및 이메일 토론 가능)</p> <p>▶ 자신이 선택한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고, 자신이 선택한 입장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를 제시해 보라.</p> <p>▶ 자신의 입장과 다른 학생의 글에 반론이 있을 때에는 반론을 제기하라.</p>	<p>▶ 어떤 학생의 발표가 제일 좋았는지 발표한다.(이메일 포함)</p> <p>▶ 자신이 선택한 입장에 대하여 발표하거나 정당화의 근거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다.</p> <p>▶ 자신의 입장과 다른 학생의 글에 반론이 있을 때에는 질문이나 답글을 게시판에 쓴다.</p>	10 분	거수와 인터넷 사이트 활용 투표, 인터넷 게시판 활용한 글쓰기.
정리	수업 정리 및 평가, 대안 탐색	<p>▶ 수업 후 자신이 선택한 입장을 수정한 사람이 있다면 손을 들어보도록 하고 인원을 확인한다. 입장을 수정한 학생들은 그 이유를 학습지에 기록하도록 한다.</p> <p>▶ 자신의 입장을 수정한 이유를 발표하도록 한다.</p> <p>▶ 두 입장 이외에 또 다른 제3의 대안은 없는지 생각하고 학습지에 기록하도록 한다.</p> <p>▶ 남북 분단으로 인한 고통에 대하여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p> <p>▶ 남북분단의 원인 및 과정을 통하여 국가정체성의 확립, 민족공동체 의식의 필요성, 더 나아가 바람직한 통일관 형성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p>	<p>▶ 수업 후 자신이 선택한 입장을 수정한 사람이 있다면 손을 든다. 입장을 수정한 사람은 그 이유를 학습지에 기록하도록 한다.</p> <p>▶ 자신의 입장을 수정한 이유를 발표 한다.</p> <p>▶ 두 입장 이외에 또 다른 제3의 대안은 없는지 생각하고 학습지에 기록한다.</p> <p>▶ 남북한 문화교류를 통한 화해 협력, 안보와 국가정체성의 의미를 확인 한다.</p> <p>▶ 국가정체성, 민족공동체 의식, 바람직한 통일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내면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p>	10 분	허용적 분위기 조성.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시

## <참고> 내러티브 자료 : 북쪽으로 보낸 영상편지

### 아버지, 어머님 전상서

너무 오랜 세월 속에 암울한 기억을 더듬으며 불효자식 00이가 인사드립니다.

새벽 닭 울기 전에 피난가야 된다고 보채시던 아버지 어머님, 포성과 총소리가 요란한 밤중에 쌀 한 말을 등에 메어주며 살아서 다시 만나자고 떠미시던 아버지. 언제 닭을 삶아 놓았는지 닭다리를 하나 찢어주며 먹고 떠나야 한다고 글썽이던 어머니 이것이 우리 부자간에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자식다운 효도한번 못한 채 통한의 세월을 보내며 아버지 어머님을 그려보곤 하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아버지 연세가 47세 어머님 연세가 48세였으니 53년이 지난 지금 100세가 넘으셨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이산의 아픔을 씻지 못한 채 천국에 가셨을 것을 생각하니 이 어찌 불효의 한을 달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법니다. 천국에서 편히 쉬시고 남은 형제들의 아픔을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향에는 큰 누나 이쁜이와 작은누나 무던이와 진규, 진욱이 그리고 조카 명자 영자가 살아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전달되어 살아있는 형제들이 이산의 아픔을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다시 모일 수 있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천국에 계실 아버지 어머님 우리의 뼈아픈 이산의 한을 아버지 어머님께서 굶어 살피시어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곳 남쪽에는 진수 형님과 멀지 않은 곳에 살면서 자주만나 고향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복이형이 5년 전에 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형제 중 진수 형이 두 아들을 낳았고 그 밑에 손자가 3명 있습니다. 그리고 진복이형은 2남 1녀 중 첫째 딸을 천국으로 보내고 아들 둘 중 손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남 1녀 중 손자 6명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두 누나는 시집을 갔을 것이고 진규와 진욱이가 있어 그간 아버지 어머님이 다소나마 마음에 위로가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머님 생전에 우리 남쪽에 있는 3형제가 하지 못한 효도를 진규, 진욱이가 버림목이 되어 많은 위안을 받으셨을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님 앞으로 세월이 좋아져 우리 형제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아버지 어머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 형제들은 그 어느 때보다 귀한 형제를 찾는 것이니 아버지 어머님 아무근심 놓으시고 천국에서 편히 쉬시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2010년 0월 0일 불효자 아들 ○○ 올림



## VI. 맺는 말

내러티브 기법을 통일교육의 방법으로 원용할 경우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통합된 사회 혹은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는 선천적이거나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구성되는 과정에서 그 경험들을 공유하여 동질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교육이 되어야 한다. 내러티브 기법은 바로 '이야기'라는 사회적 의미를 갖는 일체감을 부여할 수 있는 개념체계를 원용하는 것이다. '공유된 이야기'가 '공유될 수 있는 의식'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

둘째, 통일 이후 남북한 지역의 문화적 차이에 의한 갈등과 대립은 아마도 심각한 수준에 달할 것이다. 굳이 독일의 사례를 되돌아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명하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이러한 대립과 갈등의 양상을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라도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교육은 매우 필요하다. 남북한은 공통의 조상과 공통의 언어를 가지고 생활해 왔다는 점에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지역 간 격차나 언어의 이질화, 문화적 상이성(相異性)에 따른 갈등과 대립은 다문화주의의 핵심개념인 관용과 배려의 덕목을 통해 치유가 가능하다. 사회라는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대화 혹은 이야기도 대표되는 소통의 수단이 있다는 점이며, 내러티브라는 학습 방법을 통해 관용과 배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개인들의 집합이 인간 사회라는 점들을 교육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내러티브 기법은 이렇게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거나 그것에서 파생되는 갈등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하나라는 당위적 의무의식에서 오는 도덕적 피로감도 극복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미래의 통일교육에서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원리와 체험, 그리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가르쳐야 함은 당연한 일이며, 그렇게 될 때 구성원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보다 확장하는 과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러티브 기법은 또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조화와 균형을 통한 공동체의 형성을 당연시하고 있다. 즉, 민주주의는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자유주의는 공동체 속에서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통일교육의 핵심 개념은 바로 차이의 인정과 상호 존경과 같은 핏줄이라는 민족적 자각을 얼마나 많이 훈련하는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러티브와 연결되는 앤더슨의 민족 개념에 대한 통찰<sup>9)</sup>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족은 가장 작은 민족 성원들도 대부분의 자기 동료들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심지어 그들에 관한 이야기도 듣지 못하지만, 구성원 각자의 마음에서 친교(親交, Communion)의 이미지가 살아 있기 때문에 상상된 것이다.

내러티브를 공유하는 사회의 구성원들은 상상을 통해 다른 구성원들이 자신과 동일하게 심오한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며, 이를 통해 제한된 물리적, 정신적 영역에서 수평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관념을 갖는다. 즉 구성원들에게는 공동체야말로 사회적 실재이며, 그 시·공간 안에서 문화적으로 구성되고 경험되는 개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동질성의 확인, 통합에 대한 강렬한 욕구, 사소한 차이에 주목하기 보다는 커다란 같음에 보다 관심을 갖는 구성원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러티브 기법은 통일교육에 보다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미래 통일의 하나의 방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끝 >

### < 참고 문헌 >

1.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의 공동체」, 나남, 2007.
2. 아주경제신문, 2010. 11. 15.
3. 미국정보위원회, 「글로벌 트렌드」
4. KBS 스페셜, 2005. 11.2.
5. 통일교육지원법.
6. 통일부, 2010 통일백서.
7.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통일교육지침서.
8. 2010 광주지역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자료
9. 2010 대구지역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자료
10. 아리스토텔레스, 홍석영 역, 『니코마코스윤리학』 살림. 2004.
11. 에르네스트 르낭, 『민족이란 무엇인가』
12.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이야기』, 한길사, 2006.

9)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의 공동체』, p. 25. 나남. 2007.





## 탈북 학생 지도 사례

김 향 희  
인천논현중학교 교사





# 탈북 학생 지도사례

(미추홀학교연구회를 중심으로)

김 향 희(인천논현중학교 교사)

- I. 들어가며
- II. 탈북 학생 지도 사례
- III. 맺는 말

## I. 들어가며

1990년대 탈북주민의 등장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큰 뉴스거리였다. 특히 1987년 동해안으로 일가족과 함께 어선으로 귀순한 김만철씨는 연일 뉴스의 첫 머리를 장식하곤 하였다.<sup>1)</sup> 그러나 현재 탈북주민은 북한의 체제가 불안정해지고 경제가 악화되면서 빠른 증가를 보이며 일반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곁의 일상으로 다가온 것이다.

<표 1> 탈북주민 입국 현황 (2010.1월 입국자 기준)

구분	'89	'93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1	합계
남	562	32	235	563	506	469	626	423	509	570	612	668	42	5,817
여	45	2	71	480	632	812	1,268	960	1,509	1,974	2,197	2,259	136	12,345
합계	607	34	306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27	178	18,162
여성비율	7%	6%	23%	46%	55%	63%	67%	69%	75%	78%	78%	77%	76%	68%

\* 자료 : 통일부

1) 김만철 일가는 1987년 1월 15일 함경북도 청진항을 빠져나와 엔진고장으로 1월 20일 일본 후쿠이 외항에 포류하였다. 1월 22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김만철 일가의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김만철 일가는 제3국 망명을 희망하였다. 한일 양국은 2월 3일 타이완 정부와의 협의 끝에 단기간 경유 체류를 조건으로 타이완행을 결정하였고, 김만철 일가는 2월 7일 타이완에 도착하였으나, 다음날 타이완을 떠나 2월 8일 김포공항에 도착하게 된다.

<표 2> 탈북주민 연령별 입국 현황비교 (2009.10~2010.1)

기준시점	구 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계
2009. 10	누계(명)	674	2,055	4,772	5,726	2,579	776	802	17384
2010. 1	누계(명)	717	2,144	4,980	5,950	2,723	816	832	18162
증가인원		43	89	208	224	144	40	30	778

\* 자료 : 통일부

더욱 관심을 가질 부분은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탈북자의 증가와 함께 탈북학생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에 거주하는 탈북주민의 현황이다.

<표 3> 탈북주민 지역별 거주 현황(2010.1월 입국자 기준)

지 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충남	대구	경북	충북
인 원(명)	5,331	4,375	1,557	728	613	561	557	421	485
지 역	광주	대전	강원	전남	전북	울산	제주	계	
인 원(명)	456	409	411	393	312	193	104	17,006명	

\* 사망, 이민자와 주소 미등록, 보호시설 수용자 제외

탈북학생의 증가는 성인의 문제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남한과 북한의 교육은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로 이루어진다.

북한에서의 교육은 학문과 기능의 차원이 아닌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모든 교육이 진행된다. 전혀 다른 체계에서 학습된 탈북학생들이 남한의 학교에서 적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탈북학생의 상당수는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학령에 따라 일반적으로 학년이 정해지는 우리 실정에서 탈북학생은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학년 편성이 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북학생의 중도 탈락 비율이 일반학생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탈북학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천지역의 경우 탈북자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 탈북학생 수도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2010년 8월 1일 기준, 인천 지역 일선 학교에 총 152명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표 4> 탈북주민 학력별 입국 현황(2010.1월 입국시점 기준)

구 분	취학 전 아동	유치원	인민학교	고등중	전문대	대학 이상	기타 (불상)	계
누계(명)	503	164	1,134	12,742	1,618	1,366	635	18,162
비율(%)	3	1	6	70	9	8	3	100

\* 자료: 통일부

탈북학생에 관한 문제는 다문화 교육의 문제에 비해 사안이 심각하다. 다문화 교육의 경우 서로 다른 외모로 인해 문제는 발생하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문화권에서 자라고 성장한 학생들이기에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쉽게 동화되고 동료 학생들의 공감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탈북학생의 경우 성장 환경과 문화가 달라 적응 자체가 쉽지 않으며 겉으로 나타나는 차이를 가지지 않으며 자신의 출신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 개별적 치유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탈북학생의 문제인식은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정책적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자생적인 모임에 의해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인 인천논현중학교와 미추홀학교연구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 II. 탈북 학생 지도 사례

### 1. 인천논현중학교 소개

본교는 2006년에 개교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임대아파트주변에 위치한 남녀공학 중학교이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탈북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데 본교에 재학하는 탈북학생들이 타교에 비해 많은 것도 임대 아파트 단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에서도 남동구 특히 논현동 일대는 사할린 동포 및 탈북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편이다. 이들은 자신의 행복보다는 자녀들의 교육과 자녀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생과사의 갈림길을 헤치고 남한사회로 와서 우리 사회, 우리 이웃에 자리를 잡고 있다. 탈북의 형태가 개인위주에서 점점 가족화 되어 가고 있는 것도 시대적인 변화의 일부분이다. 탈북학생들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일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재학비율은 계속 증가할 예정이다.

<표 5> 탈북학생 재학 현황(2010.8.1 기준)

학교 급별	교육지원청별	학교명	학생수	비고
초등	동부 (93명)	인천구월서초	1	
		인천장수초	11	
		인천연수초	6	
		인천장도초	52	
		인천동방초	23	
	북부 (18명)	인천삼산초	1	
		인천갈산초	7	
		인천한길초	5	
		인천진산초	5	
	서부 (2명)	인천당산초	2	
소 계		10개교	113	
중	동부 (24명)	인천논현중	20	논현중 9월중 1명 전입으로 21명
		만수중	1	
		연수중	2	
		인천서창중	1	
	북부 (1명)	갈산중	1	
서부 (4명)	동양중	4		
소 계		6개교	29	
고	인천시교육청 (10명)	인천여고	1	
		인천논현고	2	
		인천만수고	2	
		부광여고	1	
		도림고	1	
		인천남동고	1	
		인천예술고	2	
소 계		7개교	10	
총 계		23개교	152(1)	

\* 자료 : 인천광역시교육청

가. 탈북 학생 재학 현황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 학생들이 많아 본교에 입학하는, 중도에 전입하는 학생의 수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하급수적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본교의 탈북학생 재학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6> 인천논현중학교 탈북학생 재학 현황 (2010.11.23 현재)

구분	탈북학생 수			총인원
	여	남	계	
1 학년	2	3	5	21
2 학년	4	7	11	
3 학년	1	4	5	

나. 탈북 학생들의 특성

1) 나는 이럴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

입국 후 2년 이하	입국 후 3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부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국어가 어려워서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될 때</li> <li>-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울 때</li> <li>- 북한에서 왔다고 놀릴 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들은 일하지 않으면서 우리들한테는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할 때</li> <li>- 북한에서 온 것이 밝혀져서 왕따를 당할 것 같아서 불안하다</li> <li>- 나의 의견을 무시하고 부모님 마음대로 결정해 버릴 때</li> </ul>

2)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입국 후 2년 이하	입국 후 3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방에 간다.</li> <li>- 소리를 마음껏 지른다.</li> <li>- 밖에 나가서 혼자 운다.</li> <li>- 친구들과 수다를 떠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들과 놀러 나간다.</li> <li>-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듣는다.</li> <li>- 먹고 싶은 만큼 실컷 먹는다</li> <li>- 운동을 한다.</li> <li>- PC방에 간다.</li> </ul>

3)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입국 후 2년 이하	입국 후 3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 아이들의 이기주의적인 행동</li> <li>- 북한에서 왔다고 무시하는 것</li> <li>-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li> <li>- 남한의 친구들 사귀는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이 북한에서 하던 방법대로 여기서도 하려고 하는 것</li> <li>-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li> <li>- 남한 아이들의 이기주의적인 행동</li> </ul>

4) 엄마 아빠! 제발 저의 얘기를 들어 주세요!

입국 후 2년 이하	입국 후 3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애들하고 놀지 말라고 하지마세요!</li> <li>- 남한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li> <li>- 잔소리 좀 하지 말아주세요!</li> <li>- 주말에는 쉴 수 있게 좀 해주세요!</li> <li>- 귀가 시간 좀 늦춰 주세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들만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마세요!</li> <li>- 저희들의 말을 좀 끝까지 들어 주세요!</li> <li>- 저희들의 의견도 존중 해주세요!</li> <li>- 북한에서의 생활과 비교 좀 하지마세요!</li> <li>-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지 말아 주세요!</li> </ul>

5) 선생님! 제발 저의 얘기를 들어 주세요!

입국 후 2년 이하	입국 후 3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 시간에 천천히 말씀 좀 해주세요!</li> <li>- 저희들에 대해서 이해 좀 해주세요!</li> <li>-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아주세요!</li> <li>- 상담 좀 해 주세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발의 자유 좀 주세요!</li> <li>- '북한이탈학생' 이라는 말은 쓰지 말아 주세요!</li> <li>- 조금 잘못된 것을 부풀려서 너무 많이 야단치지 말아 주세요!</li> </ul>

6) 친구들아 제발 이런 말은 하지 말아줘!

입국 후 2년 이하	입국 후 3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에서 왜 왔어?</li> <li>- 북한에서는 뭐 먹고 살았어?</li> <li>- 북한에도 이런 것 있어?</li> <li>- 너 누구랑 살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좋아 한국이 더 좋아?</li> <li>- 제발 뒤에서 뒷 담화 좀 하지 말아줘!</li> <li>- 너희들과 싸운 후에 북한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제발 하지 말아줘!</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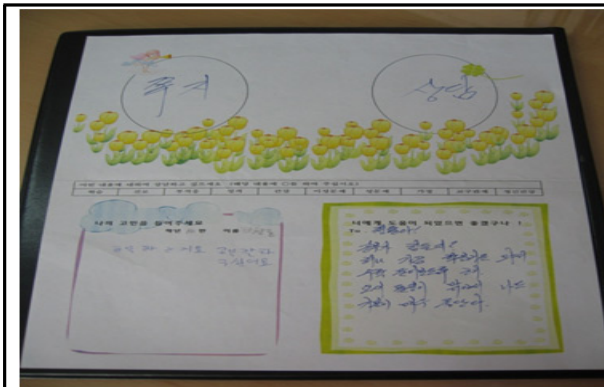
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지원 활동

1) 멘토링 상담활동(미추홀학교연구회와 공동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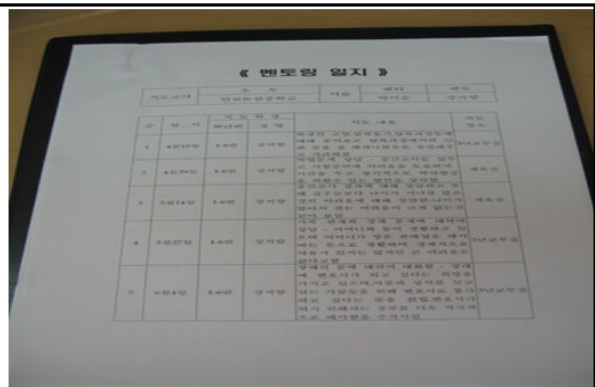
인천논현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를 멘토로 지정하고 타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는 미추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활동을 한다.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KEDI)에서 파견된 전담 교사는 개별상담과 집단 상담 등을 통하여 학생 개인에 대해 분석한 자료들을 담임에게 제공하여 심리·정서 지원에 많은 도움을 준다.

【 2009학년도 멘토 - 멘티 현황 】

연번	멘 토	멘 티	비고
1	김0희	꼬맹이	멘티 별명 표기
2	공0연	피카소	
3	공0연	철학자	
4	최0미	깨심이	
5	박0순	왕언니	
6	서0수	남한국인	
7	손0영	식스팩1	
8	심0영	단발머리	
9	이0희	얼큰이	
10	심0영	해둥이 1	
11	박0자	룡둥이 2	
12	여0자, 김0영	박지성	
13	김0희	커피집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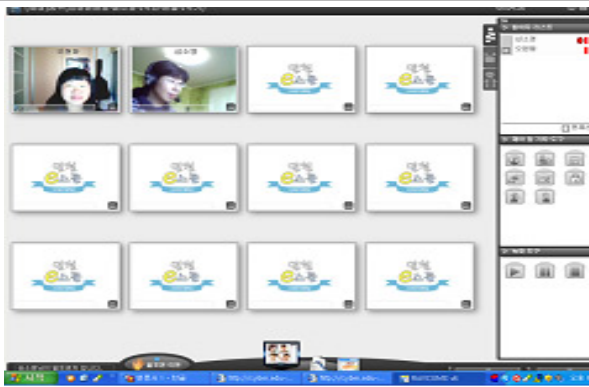
쪽지 상담 활동 기록지



상담 결과 일지

2) 학습지도( 예시- 2008 하계방학 )

주제	하계방학 중 학습지도 활동실행계획														
활동기간	2008년 8월 4일(월) ~ 8월 23일(토) -1-8반 교실														
활동내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개 교과 보충지도와 진로지도														
활동성과	1학기 성적결과에 따른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충														
	2학기 학습계획서 작성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 설계														
차레	8.4	5	6	7	8	9	11	15	16	18	19	20	21	22	23
1교시	영	국	영	국	영	사	영	사	수	사	수	과	수	과	과
2교시	영	국	영	국	영	사	영	사	수	사	수	과	수	과	과
3교시	국	영	국	영	국	영	영	수	사	수	수	수	수	과	과
4교시	국	영	국	영	국	영	사	수	사	수	수	수	과	과	진
5교시	진	진	진	진	진	진	사	진	진	진	진	진	진	진	진
종례사항	출석부 준비 및 교실 뒷 정리 필수														

	
하계 방학 중 재미있는 과학시간	화상수업을 하면서 살짝^^*

3) 진로지도(2008 하계방학)

학생 개인의 미래에 대한 꿈을 설계하고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을 목표로 자신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단계부터 차례로 진행하였다.

- 가) 일시 : 2008. 8. 4(월) ~ 8. 23(토)
- 나) 장소 : 1학년 8반 교실
- 다) 교사 : 김향희(한국고용정보원 진로지도 특별연수 이수자)
- 라) 내용 : 나를 찾기, 진로 지도 그리기, 나의 꿈 갖기 등



진로수업 1



진로수업 2

4) 진로 직업지도 특강(2009 하계방학)

인천광역시교육청 특별연구교사를 초빙하여 커리어넷과 위인을 통한 SWOT 분석으로 수업을 하였으며 강사의 색다른 경험이어서 좋았다는 인사를 받았다.

- 가) 일시 : 2009. 8. 3(월) ~ 8. 6(목)
- 나) 장소 : 1-8반 교실
- 다) 강사 : 인천시교육청 특별연구(진로지도)교사 김소현
- 라) 내용 : 자기의 특색 및 위인을 통한 SWOT 분석



컴퓨터를이용한 커리어넷 진로직업지도



SWOT분석을 통한 자신 돌아보기

## 5) 다사랑 동아리 활동

해마다 탈북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전통예절 및 다도를 익혀 동부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인 다례경연대회에 참가한다.



(2010년도 제5회 동부교육지원청 다례경연대회 우수상 수상)

## 6) 장봉혜림원 봉사체험 캠프

### 가) 목 적

- 탈북학생의 진로탐색 능력 신장을 통한 자립심 제고
- 탈북학생에게 학교지지를 기울임으로써 사회 통합의 토대 마련
-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긍정적 자아개념의 발달 지원
-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나) 방 침

- 인천지역 탈북학생으로 확대하여 진행한다.
- 멘토링 캠프의 참여는 희망자에 한한다.
- 수업 결손을 최소화 하기위해 동, 하계 방학 기간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나 주제에 따라 학기 중에 실시 할 수도 있다.

다) 세부 운영계획

- 기 간 : 2010. 7. 23 ~ 7. 25 (2박 3일)
- 장 소 : 장봉혜림원(인천시 옹진군 장봉도 소재)
- 대상학생 : 탈북학생 25명
- 체험학습 내용 : 지적장애인생활시설 자원봉사 및 갯벌체험 학습
- 인솔교사 : 김향희, 최향미, 노현주, 이영현(탈북학생 전담 코디네이터)
- 세부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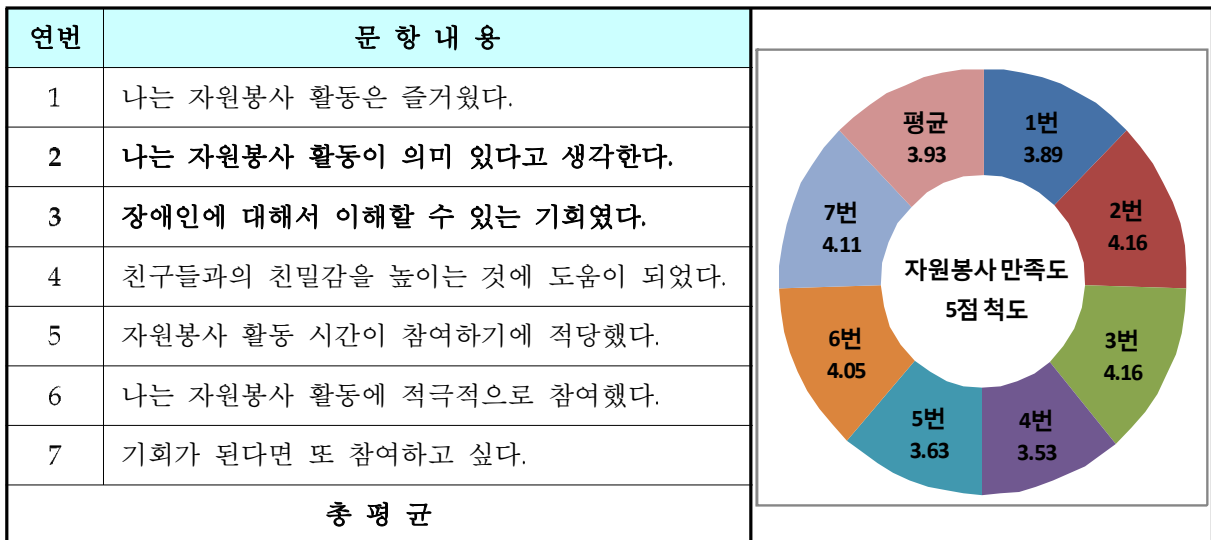
날짜	시간	활동 내용	비고
7월 23일	08:30 ~ 09:00	학교 집결 및 인원 확인	
	09:00 ~ 12:00	장봉혜림원 이동	
	12:00 ~ 13:00	점심 식사	
	13:00 ~ 14:00	장봉 혜림원 소개 및 자원봉사자 교육	
	14:00 ~ 18:00	자원봉사 활동	
	18:00 ~ 19:00	저녁 식사	
	19:00 ~ 21:00	자원봉사 활동	
	21:00 ~ 22:00	자유시간	
	22:00 ~	취침	
7월 24일	07:00 ~ 08:00	기상 및 세면	
	08:00 ~ 09:00	아침 식사	
	09:00 ~ 12:00	자원봉사 활동	
	12:00 ~ 13:00	점심 식사	
	13:00 ~ 18:00	자원봉사 활동	
	18:00 ~ 19:00	저녁 식사	
	19:00 ~ 21:00	자원봉사 활동	
	21:00 ~ 22:00	캠프파이어	
	22:00 ~	취침	
7월 25일	07:00 ~ 08:00	기상 및 세면	
	08:00 ~ 09:00	아침 식사	
	09:00 ~ 12:00	자원봉사 활동 소감나누기 및 해산	



기관소개 및 자원봉사자 교육

오늘은 가장 쉬운 청소를 하는 날

【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조사 분석 】



7) 고교진학지도 특강

본교 3학년 부장(심예섭)의 강의로 진행된 고교 진학지도의 시간으로 일반학생들과 함께 진행 하였다.



#### 8) 한국문화 이해 멘토링 캠프

토요 휴무일 및 동·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미추홀학교연구회 교사들은 탈북학생들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과 한국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사전답사 후 캠프를 진행한다. 캠프 결과는 홈페이지에 사진과 함께 탑재하여 공유하고 있다. 캠프를 다녀 온 후에는 반드시 평가와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변화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미추홀학교연구회 홈페이지: [club.cyworld.com/michoohols](http://club.cyworld.com/michoohols)



경주권 (2008학년도)



충청권 (2009학년도)



경북권 (2009학년도)



전라권 (2010학년도)

### 9) 학교장 특강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의 힘들고 어려운 점을 들어주고 격려하는 특강시간을 운영한다.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어 지속할 예정이다.



생생한 강의를 하시는 교장선생님(1차)



같은 민족임을 확인하는 강의시간(2차)





## 2. 미추홀학교연구회

교사들의 자생 연구동아리인 미추홀학교연구회는 2006년 인천남동중학교 2학년 교무실에서 탄생했다.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자녀(코시안)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교육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리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 출발점을 두고 시작 되었다. 몇몇 교사들이 그 아동들을 위해 한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보자는 의견에 마음을 모아서 다양한 자료를 제작하였으며, 그 일을 계기로 미추홀연구회가 시작되었다. 성경의 한 구절 중에 '출발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처럼 언제나 출발은 미약한 것이 아닌가?

### 가. 목적

최근 몇 년 사이 인천에 탈북청소년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인천에서 일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탈북학생의 비율이 전체의 10%를 상회하고 있는데, 그 중 21명이 본교에 재학하고 있다. 개교 초기 불과 8명이었던 탈북학생이 작년부터 갑자기 21명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탈북 학생의 증가가 피부에 와 닿는다. 더불어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 방법의 정착 및 보급,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탈북학생들이 한국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탈북 학생들뿐만 아니라 남한 학생 및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탈북학생들이 남한 학교생활 및 습관에 익숙해지면 학습 능력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대안 교육기관이 탈북학생들의 교육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여러 방면에서 일반 학교가 담당해야 할 몫이 점차 커져 가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안 교육기관에서 할 수 없는 남한 학생들과의 자연스러운 생활에서 나오는 교육적 효과가 큰 만큼 일반 학교에서 탈북 학생에 대한 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탈북학생들이 우리 사회에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들의 존재감 및 자아 효능감을 느껴 통일의 주역으로서의 역할과 나아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초석이 될 거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 나. 운영 방침

인천시내 재직 중인 초, 중, 고 교사로 교과에 관계없이 연구회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연구회에서 하는 일의 목표를 크게 두지 않고 현장에서 우리들이 실천 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한다.

- 1) 탈북 학생에게 가장 부족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기초교과에 대한 학습지도를 한다.
- 2) 멘토링 상담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심리적인 면과 정서적인 부분을 이해 하고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한다.
- 3) 역사 및 한국문화의 이해를 위한 캠프활동을 실천하여 남한 사회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 4) 연구회원들이 탈북학생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각종 연수 및 세미나, 워크숍 참석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5) 학생들 개인의 진로 결정을 위한 전문가의 특강시간을 운영한다.
- 6) 학생들의 진로를 위한 지역 유관기관과의 진로체험을 활성화 한다.

## 다. 구성현황

인천시내 재직하는 초등, 중등 교사 약 40명

## 라. 미추홀학교연구회 고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 윤건선 장학사

## 마. 연구회 연혁

- 1) 2006년 미추홀학교연구회 조직(7명으로 시작)
- 2) 2006년 혼혈아동(코시안) 한국문화이해자료 제작
- 3) 2008년 인천광역시 교과교육 연구 활동 우수교과연구회
- 4) 2008년 인천시교육청 창의혁신연구모임 장려 입상
- 5) 2008년 조선일보-한국교총 '선생님이 희망이다' 우수교과연구회 선정

## 바. 제작한 자료들(2008~2010)

탈북학생들의 한국생활, 학교생활, 내 고향 인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연구회에서 제작한 목록들이다.

### 1) 남북한 어휘 사전

학생들이 남한사회의 언어를 어려워하고 북한에서 사용하던 낱말이 이해가 잘되지 않아 어휘사전 및 남북한 비교 낱말을 제작하였다.

### 2) 한국문화 이해자료

탈북학생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학생들 수준에 맞는 용어를 선택하여 교과별 교사들이 모여서 자료집을 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역사, 한국 속의 세계유산 등)

### 3) 학교생활 안내 길라잡이

학생들이 생활 하는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학교생활 이야기, 학습도우미, 생활 속의 자원 절약, 인천의 문화재, 휴대전화 제대로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인천의 프로스포츠구단(SK와이번스, 인천유나이티드FC), 인터넷으로 영화 티켓 구매하기, 인천의 박물관 등의 내용을 정리 취합하여 간단한 책자로 제작하였다.

### 4) 내 손안에 있는 행복한 미래

진로지도의 가장 기본인 자신의 소중함을 시작으로 내가 바라보는 나, 친구가 바라본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5) 손에 잡히는 생활 길잡이

한국에 와서 학교에 입학하기 전 알아야 할 내용 등을 요즘 학생들이 선호하는 다이어리 형식으로 제작하였다.

## 6) 학생수첩

학사일정 및 평가 방법, EBS의 효과적인 활용 방법, 학교축제, 동아리에 대한 설명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7) 학습 플래너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학습을 좀 더 체계적으로 시키고자 학습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의 실천여부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 8) 학습노트

수업시간 및 공부방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거나 멘토 선생님과 대화 중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필기를 할 수 있도록 노트를 제작하였다.

## 9) 기초 학습 교재

책장 겉표지에 제목을 표기하지 않고 예쁜 겉장으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실제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구성하여 학습에 관한 부담감을 줄였으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선생님들의 참여로 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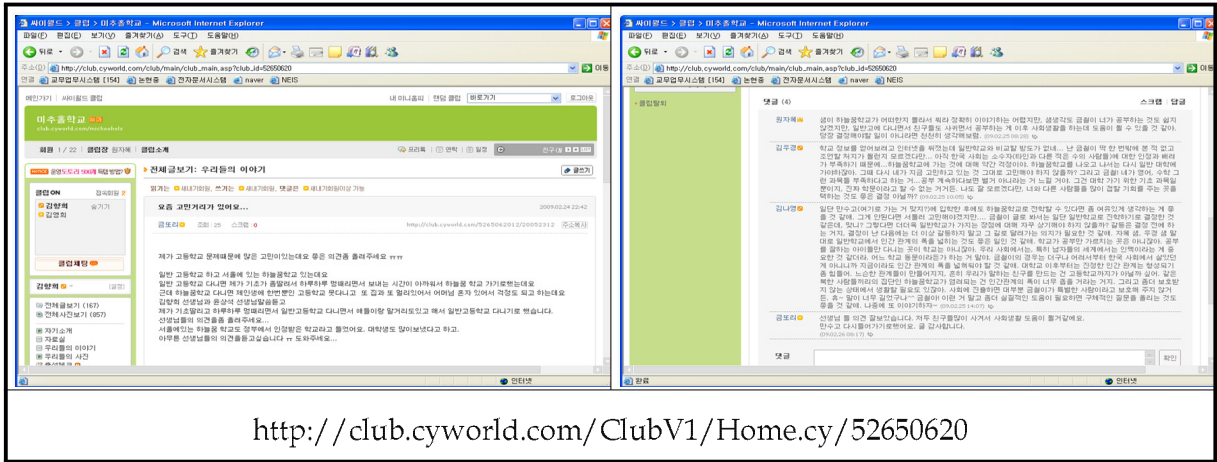
## 【 제작한 자료들 】

		
1) 남북한 어휘 사전	2) 한국문화 이해자료	3) 학교생활 길라잡이
		
4) 내손안에 있는 행복한미래	5) 손에 잡히는 생활 길잡이	6) 학생 수첩
		
7) 학습 플래너	8) 학습 노트	9) 기초 학습 교재

### 사. 홈페이지 운영

탈북학생들과 미추홀학교연구회 교사들의 사이버상의 만남의 장이며 각종 공지 사항, 행사, 진학에 대한 고민 등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대화의 장이 되고 있다.

## 【 미추홀학교연구회 홈페이지 】



<http://club.cyworld.com/ClubV1/Home.cy/52650620>

### 아. 연구회 교사를 위한 워크숍 및 연수

미추홀학교연구회 교사들의 탈북학생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하고 시대적 변화에 대비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참석한 연수 및 워크숍 장면



탈북청소년 교육지도자 합동워크숍(2009.1)

경북권 교사연수에서 미추홀학교 연구회 우수사례 발표(2009.5)

### 자.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탈북주민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가깝게 다가 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한 행사였다.



2008년 10월 남동복지 한마당에서 - 인식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 3. 학교와 연계한 지역 교육지원기관

2007년 무지개청소년센터와 인천지역 탈북청소년 종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탈북주민 및 학생에 대한 다양한 생활의 편의 제공 및 교육 지원 활동을 연계하고 있다.

#### 가. 무지개청소년센터

인천지역의 특성과 지역거주 탈북아동, 청소년 개개인의 역사, 상황,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탈북 아동, 청소년의 정착을 지원

#### 나. 천주교 새터민지원 센터

대학생 자원봉사자 활용한 기초학습 지도(학교일정을 제외한 화, 목, 토, 일) 및 테마별 체험활동계획 실행

#### 다.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하계방학마다 한마음 제주 캠프 운영

#### 라. 만수복지관

공부방 운영, 독서시간 운영



마. 남동하나센터<sup>2)</sup>

하이사회복지센터가 통일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으로 거주지에서 초기 적응 및 취업, 진로 지도 등 종합적인 정착지원을 통해 자립자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탈북주민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하나원에서 전입하는 탈북주민을 대상으로 3주간의 초기 집중교육과 1년간의 밀착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 6. 지도 후기

북한아이들과 처음에 여러 활동을 시작하면서 나름 힘든 부분도 있었다. 혹여 다른 선생님들께서 학생들과 활동을 할 때 참고가 될듯하여 적어 본다.

**첫째, '약속'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산주의 사회는 철저한 약속아래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그와는 정반대다.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선생님들만의 약속 지키기의 방법이 필요하다.

**둘째, 생각 하는걸 싫어하여 수학문제 풀 때나 다소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그냥 포기해 버린다.**

아마도 이 부분은 한국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유독 탈북학생들이 심하다. 머리를 사용하는(생각을 해야 하는)부분이 나오면 그냥 포기해 버리고 만다.

**셋째, 학습공백이 너무 커서 단시일 내 만회가 되지는 않지만 진로지도를 통한 간접적인 학습의 필요성과 방향을 알려주는 방법이 효과적이었다.**

학습공백이 만회가 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북한과 남한의 용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 공립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한다면 교과별 수업 용어를 북한말(↔남한말)로 바꾸면 학생들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것이다.

---

2) 지원근거: 탈북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009.1.31)개정된 정착지원법 제15조 제2항에 '거주지 적응교육'신설

넷째, 봉사활동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고 동아리활동과 병행하면 효율적이다.

한국사회에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지금도 무척 힘들지만 나 자신 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세상을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나의 도움으로 인해 잠시라도 행복해 졌다는 현실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게 중요할 듯하다.

다섯째, 학급에 북한학생이 배정이 되면 학기초에 반드시 부모 상담을 권장한다.

북한에서 온 부모의 대부분은 학교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남한사람들은 모두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는다.

여섯째, 학생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 보호담당관의 연락처를 알아둔다.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부모들이 때로는 교사의 말보다 보호담당관의 이야기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전화번호를 파악 해둔다.

일곱째, 학생 개인의 학습이력 파일을 만들어 활용한다.

여덟째, 학생 개인의 부적응 요인(영역별)을 분석 하는 것이 좋다.

## 7.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역할

첫째, 탈북학생 담당교사 지정

둘째,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직무연수에 탈북학생 연수 이수 포함

셋째, 학기별 탈북학생 이해를 위한 교사 연수 운영

넷째, 한국 학생들에 대한 북한 이해 교육 (통일교육과 연계)

다섯째, 입학과 동시에 개인 부적응요인(학습부분) 분석

여섯째, 학습부분과 병행하여 전 교과 진로직업지도 진행

일곱째, 지역유관기관과 연계한 진로체험 활동을 활성화

여덟째, 개인 프로파일(적성검사, 학습결과) 제작하여 초, 중, 고까지 연계하여 개인별 맞춤형 지도 자료로 활용

### Ⅲ. 맺는 말

가슴으로 일하는 따뜻하고 정열적인 연구회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과의 만남이 올해로 벌써 4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 연수를 받던 때가 생각이 난다. 탈북학생들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어떻게 지도해야할 지 막막한 상태였다. 연수를 받으면 온전히 그들에 대해 알게 되고 뭔가 뚜렷한 길이 보일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연수를 받았다. 그러나 연수를 받고나면 그 불편한 감정들이 밝은 아침 햇살 속에 부서지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연수를 받으면 받을수록 미궁에 갇히는 기분이었다. 그건 생전 처음으로 느껴보는 참으로 암담한 절망이었다.

아이들은 힘겨워 하면서도 죽도록 공부한다. 어느 때는 천주교 센터에 공부하러 가기 싫을 때도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아이들은 돈 많이 벌어서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으로 모두 잘 참고 적응하고 있다.

때로는 자신에게 물어본다. 아이들에게 미래를 이야기 하면서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강요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렵게 가는 캠프가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의 효과는 있는 것인지... 문득 문득 걱정스러워 질 때가 있다. 올해는 내년에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5명이나 되기에 마음이 좀 무겁다. 어느 해나 늘 마찬가지로 지난해보다 조금 더 나은 해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멘토링 활동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교환일기도 멘티마다의 방법을 개발하여 함께 꾸준히 작성하게 할 것이다. 고등학교 진학에 관한 자료들을 많이 수집하여 안내하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살려 진학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다. 나와 선생님들이 하는 모든 교육활동이 우리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 그래도 학교가 즐거운 곳이라는 걸 마음으로 느끼고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끝 >





# 초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

강 병 속  
인천마장초등학교 교사





# 초등학교에서의 통일 교육

강 병 숙(인천마장초등학교 교사)

- I. 들어가며
- II. 초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 실태
- III.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
- IV. 초등학교 통일교육이 나아갈 방향
- V. 맺는 말

## I. 들어가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지금 5학년 7차 음악교과서에 실린 곡이다. 이 노래를 배울 때 아이들에게 느낌을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왜 우리의 소원이 통일입니까?’, ‘저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데요. 왜 이런 노래가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라는 대답들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물론 남북 정상회담을 거치며 통일에 관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 일선 학교에서도 각종 통일관련 행사가 단위 학교별로 진행되고 수업시간에도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기도 하며 통일관련 전자공청회 개최, 북한 바로알기 사이버 퀴즈 참가, 통일 골든벨 등에 참가하여 장학금을 받기도 하는 등 통일에 대한 대내외적 행사는 많아졌지만 과연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과연 높아졌을까?

학교 현장은 통일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통일문제가 아직은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에게 절실히 피부에 와 닿지 않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고 우리 민족 최대의 화두인 통일문제에 팔짱끼고 쳐다볼 수만은 없는 일이기에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개선방안을 찾아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 II. 초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 실태

### 1. 통일교육의 의미

통일교육이란 분단된 조국의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으로 첫째, 학생들에게 통일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지식, 정보를 알게 하는 교육, 둘째, 통일과 관련된 합리적 의사 결정력과 판단력, 그리고 민주적 생활태도를 길러주는 교육, 셋째, 통일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통일의지를 함양하는 교육, 넷째,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하는 교육이다.

### 2. 통일교육의 실태

- 가. 통일관련 행사를 추진했을 때 대다수의 학생들이 통일교육 관련행사(글짓기, 표어 짓기, 포스터 그리기)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 나. 대부분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통일교육 관련행사 횟수는 연간 1~3회 정도로 횟수가 적은 편이다.
- 다. 통일교육 자료의 출처는 통일관련 인터넷 사이트, 통일관련 교과서 및 지도서, CD나 비디오의 영상자료, 통일관련 신문기사 및 잡지 등이며 자주 사용하는 수업방법은 강의식, 영상수업, 인터넷을 통한 수업, 토론식 수업, 발표식 수업 등을 사용하고 있다.
- 라. 학생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은 대체로 낮은 편이며 그 이유로 '흥미 있는 자료가 없어서', '민족, 국가에 관심이 없어서', '시험에 나오지 않아서', '수업내용이 지루해서', '나와 관계없는 내용이라서' 등이 있다.

## III.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

### 1. 동태적 성격

통일이라는 주제가 정태적이라기보다는 동태적인 성격이 강해서 정부의 통일정책 변화속도에 상응하는 통일교육을 학교에서 전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통일은 어느 한편에서 준비한 계획을 일관성 있게 집행해 나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통일교육을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향후 정세의 변화상황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급변하는 통일정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가르치기는 대단히 힘들다. 결국 교재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 현실인데 이럴 경우 최근의 통일논의와는 별개로 교과서 집필 당시의 지식과 관점에서 가르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 2. 다양한 항목들을 포함하는가?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은 안보교육과 체제에 대한 우월성을 강조하는 통일교육의 성격이 강하다. 통일교육은 다양한 항목의 내용들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의 통일교육은 목표, 내용, 방향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 3. 정치와 경제가 밀접히 연관, 특히 북한은 모든 것이 정치에 예속

학생들이 남북한의 정치와 경제 체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는데, 현재의 교과서에는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짓지 않고 서술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라는 구분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 4. 남북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교과서 내용에서 분단과 전쟁의 책임을 묻는 내용과 남북한 체제비교를 통한 우월의식, 차별의식으로 이루어져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은 북한 주민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많다.

## 5. 시수 부족

통일교육 내용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도덕과 수업시수(주 1시간)가 너무 적다. 통일교육에 대한 다양한 영역들을 1년에 몇 시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모두 소화해 내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소홀이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 6. 교사의 전문적인 지식 부족

교사들 또한 북한에 대한 편견과 무지의 경향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교사들 외에 대부분 교사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정도밖에 북한에 대해 알지 못하고 게다가 대학까지 20년 가까운 교육 속에서 반공, 안보의식을 모범적으로 학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근의 급변하는 정세가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 7. 학생들의 무관심

현재 학교의 통일교육이 학생들에게 관심과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미있는 수업은 학생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기꺼이 학습활동에 참여할 의욕을 불어 넣는다. 그러나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설명위주의 통일교육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통일을 귀찮게 여기는 경향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 IV. 초등학교 통일교육이 나아갈 방향

## 1. 가치관 확립

초등학생들에게 북한주민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동포이며 한민족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원래 하나의 국가였으나 국제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에 의해 분단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적 평화통일의 가치관이다. 평화통일을 원칙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시키고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야 한다.

## 2. 통일교육 시간 확충

학교 통일교육 시간을 확충해야 한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2008.12월 실시

한 청소년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각급 학교의 통일교육 편성시간 및 교육시간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학교에서 통일교육은 연 평균 약 6.5 시간으로 조사되었다. 그 이유로는 통일관련 내용이 교과서의 마지막 단원에 편성되어 있어 교육 시 생략되는 경우, 시험 출제 범위가 아니어서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에서 통일교육이 활성화되게 하려면, 통일관련 단원을 교과서의 중간 부분에 편성하고 학기 중 통일교육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재량, 특별활동 시간에 판문점, 통일전망대, 통일관, 호국 사적지 등 통일 안보현장을 견학하는 것도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일선학교에서 북한이탈주민(청소년, 교사 등)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수업을 개최하는 등 참여교육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3. 교사들의 전문성 확대

교사들에 대한 통일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 통일교육을 직접 담당해야 할 교사들도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대체로 승진 가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영재, 수학, 과학 등 과목에 치중하고 통일교과에 대해서는 열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교사들이 통일교육을 하고 싶어도 교사들 스스로 통일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 교육에 어려움이 많다. 교사들에게 다양한 통일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통일교사 연구회' 등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최신자료를 제공하며 교사 간 교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들의 전문성 못지않게 학교장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학교 통일교육의 성공을 가늠하는 관건적 요소다. 통일교육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개되려면 정부 차원에서 우수학교 통일교육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학교장을 격려하여 학교장이 앞장서서 통일교육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시키고 통일 교육의 중요성을 학부모, 학생, 교사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일선 학교현장에서 통일교육을 하는 경우 교과서 중심의 강의식, 주입식 수업으로

인하여 학생들을 통일 문제에 대해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생 수준별로 적합하고 표준화된 통일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도 부족하고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들도 많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플래시 애니메이션, 영상교육 자료 등을 제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전 골든벨' 과 같은 방송 및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통일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대상 사이버 이벤트와 논술 대회의 개최, 학점인정 프로그램의 운영 및 교원 대상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를 생각할 수 있다.



< 2010.11.1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인천마장초 6학년 대상 통일 골든벨 >

<p>북한의 축구 중계</p>	<p>멀티미디어 교수학습 자료 아이스크림 내의 통일교육 자료</p>	<p>북한의 대중 교통</p>
------------------	---	------------------

	<p>통일교육원 홈페이지 게재 동영상 교육자료</p>	
--	---------------------------------------	--

## IV. 맺는 말

통일은 우리 민족 최대의 화두이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 아닐까? 한 민족이 다 같이 자유와 번영, 평화를 누릴 그 날을 위해 교사로서 마땅히 통일교육에 앞장서야 하는 것은 민족과 역사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통일교육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루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마간산격으로 통일교육을 해오지 않았나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초등학생들에게 통일이 즐겁고 자발적으로 탐구하고 싶은 과제가 되기 위해서는 체험과 활동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 끝 >

### < 참고 문헌 >

1.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 2010.
2. 이옥주, 『남·북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초등학교 통일교육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제 29회 교육연구논문, 2007.
3. 김미영, 『통일 사회의 갈등 양상을 통해 본 학교 통일교육 방향』, 경인교육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 참고 >

### 시범학교 운영사례를 통한 초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 방법<sup>1)</sup>

## 1. 북한 바로알기 교육여건 조성

### 가. 북한관련 교육환경 구성

교실에는 학교에서 월 2회 북한관련 시사 자료를 제공하면 학급 내 북한연구 담당학생이 주제관련 내용을 세분화하여 담임교사의 지도학급에 게시하고, 복도 및 실내 공간(통일실)에는 통일 상식, 통일 표어, 사행시, 각종 통일행사의 학생 우수작품 게시, 북한의 생활용품, 지역별 특산물 전시하여 학생의 흥미를 유도한다.

### 나. 북한관련 교내 연수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교사들에게 올바른 통일관을 심어주어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사 연수를 실시한다. 또한 현실적인 북한 실상을 전달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고, 북한 이탈 주민 및 북한 방문 지역 인사를 연사로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며, 통일 교육의 중요성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가정과 연계 지도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학부모회를 개최한다.

### 다. 학교 통일교육 시간 확보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2009.09.11)적용을 통한 교과과정 정선을 거쳐 도덕과(바른생활)와 사회과(슬기로운 생활)에서 20% 증배하고 이 시간에 통일교재(통일연구회 발간, 서울시교육감 인정도서)로 교육을 실시한다.

### 라. 온라인 카페 개설

1) 2010년 전라북도교육청지정 통일교육시범학교 군산홍남초등학교 사례

「통일로 가는 길」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여 학생들의 북한관련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한다.

#### 마. 북한관련 교수·학습 자료 제작 및 확충

북한 바로알기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사들은 방학 중 교외연수를 통해 교과목별 북한관련 학습자료를 제작·확충하여 교육활동에 활용한다.

## 2. 북한 바로알기 학습활동 전개

### 가. 북한 바로알기 『통일』 인정도서 적용

학년별로 ‘한국통일교육연구회’ 발행 인정도서 ‘통일’ 교재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서도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연 27차시)으로 학년별 연간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학급교육과정에 반영한다. 또한 통일교육 관련 교수·학습 모형 탐색, 통일교육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교과관련 학습지 작성, 통일교육 관련 수업공개를 실시한다.

### 나. 북한 바로알기 재량·특별 활동 지도자료 적용

#### 1) 재량 활동 통일교육 연간지도계획 수립

통일교육원에서 배급한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중 흥미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 때 교사는 사전 시청을 통해 영상을 활용한 토론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연간지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2) 재량 활동 교수·학습 모형 탐색

멀티미디어 영상자료 내용에 적합한 교수·학습과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통일의지를 함양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을 작성 활용한다.

#### 3) 재량활동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멀티미디어 영상 활용 재량활동 시간 중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 4) 재량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재량활동 연간지도계획에 의해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매월 3주째 토요일 4교시에 상영한다(연 6회). 또한 교과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내용과 활동으로 구성하여 체계적 지도가 이루어지게 한다.

#### 5) 특별 활동을 통한 북한 바로알기 교육

통일 영상부	사이버 통일 학습실 운영, 통일관련 UCC 제작, 통일 현장 체험학습 UCC 제작
통일 사진부	북한 관련 사진 자료 수집 및 홈페이지 북한관련사진 메뉴 운영
통일 만화그리기부	만화그리기를 통해 민족공동체 의식과 통일의 당위성을 높이는 내용의 홍보물 제작
통일 음악줄넘기부	줄넘기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인기대중가요를 음악줄넘기에 적용하여 북한의 음악에 익숙해 질 수 있는 기회 제공

### 3. 통일의지 내면화를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전개

#### 가. 현장체험 학습을 통한 북한이해

현장체험 학습은 활동 전 학생들에게 유인물을 제작하여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활동하도록 하며 체험 학습장 선정은 분단된 국토의 현실을 피부로 직접 느껴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하여 학생들이 통일세대의 일원임을 깨달을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그리고 체험학습 후에는 소감문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시간에 학급에서 발표하고 우수 작품은 담임교사의 추천 아래 사이버 통일학습실에 탑재하여 학습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 나. 도서 활동을 통한 북한이해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생각과 견해를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통일의 실천적 의지를 내면화 할 수 있도록 각종 도서 행사를 실시하고 우수 작품은 시상 후 사이버 통일학습실에 탑재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

#### 다. 행사 활동을 통한 북한 이해

##### 1) 통일 영어 골든벨 대회



통일교육을 통해 알게 된 북한의 생활 풍습, 명절생활, 자연환경 등에 대한 내용을 영어로 골든벨 대회를 진행하도록 한다.

#### 2) 북한 이해를 위한 통일 정보 검색 대회

사이버 통일학습실에 탑재된 북한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참가 학생에게 정보검색 주제를 부여하고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 3) 통일 민속 체육대회

매년 5월초에 실시하던 교내 체육대회에 민속경기 프로그램을 삽입하여 통일 민속 체육대회로 실시한다. 운영 프로그램은 전래 민속경기를 주 종목으로 선정하여 운영한다.

#### 4) 통일 기원 야영 활동

매년 가을에 실시하고 있는 야영활동을 “통일기원”이라는 주제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 중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오 미 숙  
능허대중학교 교사





# 중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오 미 숙 (능허대중학교 교사)

- I. 들어가는 말
- II. 중학교 통일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
- III. 중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 IV. 맺는 말

## I. 들어가는 말

2010년 을 한해는 우리 민족에게 많은 의미와 교훈을 남겨준 것 같다. 6.25전쟁이 일어난 지 60년이 되는 해이며, 통일 독일을 이룬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통일 이후 20년이 지난 독일은 통일로 얻은 성과는 실로 눈부시다. 우선 독일은 통일 이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대국이 되었다. 독일 통일의 영향은 유럽에 수많은 영향을 미쳤다. 유럽의 민주주의화, 유럽통합 과정의 심화, 유럽의 궁극적 통합, 경제와 환경적 조건 개선, 그리고 안보환경 개선 등이다. 무엇보다도 독일 통일의 최대 성과는 유럽에서 단일시장의 형성과 단일화폐 유로화의 도입인 셈이다. 이제 통일독일은 유럽연합의 중심국이 되는 큰 성과를 얻었으며,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국제적 위상을 누리고 있다. 통일독일은 유럽통합의 과정을 안정적으로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유럽교통의 중심지, 허브가 되었다.

우리민족은 6.25전쟁 60주년을 맞이하여 뼈저린 반성과 교훈을 발판삼아 21세기 통일한국의 비전을 찾고 도약할 시기에 금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피격으로 46명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가슴 저린 민족분단의 현실을 또 실감했다.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민족은 여전히 역사적 흐름에 역행하는 길을 아직도 가고 있다. 이제 우리도 통일독일의 국제적 위상을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통일한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통일은 21세기 우리민족의 번영을 위해 꼭 이루어내야 하는 과업이며 통일은 21세기 미래산업이다. 이러한 미래 지향적 통일비전을 남북한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 모두 통일이 현재의 남북분단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통일을 향하여 뜻을 모아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미래 통일한국의 주역인 통일일꾼을 배양하는 것은 일선 학교현장의 최상의 과업이며 모든 교사들의 통일교육 실현의지는 역사적 사명이고, 책무이다. 남북한의 대립과 갈등, 교류 협력의 전개양상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냉엄한 현실 속에서 학생들이 균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시각에서 북한·통일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학교 통일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시도되어야만 한다.

이에 중학교 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나아가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의하고자 한다.

## II.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

### 1.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 지정 통일교육 연구(시범)학교의 연구보고서를 분석해보면, 조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통일·북한 문제에 대해 거의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무관심하거나 통일의 필요성에 부정적이며 아예 자신과는 상관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학생들의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이 형성되지 못하고 의지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점도 나타났다. 이러한 사태를 가져온 교사와 학생, 각급학교 통일교육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 가. 교사 실태

교사들은 대체적으로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전망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지 못하며,
- 앞으로 전개되는 통일전망에 대한 확실한 소신을 갖고 있지 못하며,
- 교과서 위주의 강의식 수업진행, 통일교육 교수기법이 다양하지 않으며,
- 학교 통일교육에 필요한 통일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편이며,
- 범교과 수업에 활용할 통일교육 자료가 부족한 편이다.

## 나. 학생 실태

북한을 한민족이라 생각하고 일부는 통일에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편이며,
- M세대로서 형식적이고, 주입식 수업위주의 통일교육에 부정적이며,
- 북한을 한민족적 측면보다는 가난한 나라로 인식하는 등 북한문제에 대한 균형적 시각이 부족하며,
- 이기주의적 경향으로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 사회의 배타주의적 시각에 의해 오히려 통일을 기피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 다. 각급학교 통일교육의 실태

각급학교에서는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 학력향상 위주로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과 주요 교과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로 학교를 평가하는 교육정책에 휩쓸리고 있으며,
- 통일 및 북한문제에 능통한 보다 많은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며,
- 학교 통일교육이 일회성의 행사로 그치는 경향이 있으며,
- 실리적인 업무분담으로 통일교육에 전무한 교사가 통일업무를 맡아, 통일교육을 방관하거나, 축소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 2.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 분석

### 가. 도덕과 교육과정 측면에서 수업시수 부족 및 시기상 문제

학교현장에서 북한과 통일교육에 대한 비중은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앞으로 추세 또한 그렇게 밝지 않다. 특히 2009개정 교육과정이 실시되면서 통일교육은 그 비중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목 가운데서도 북한과 통일교육 관련 단원을 체계적으로 다루던 도덕교과에서조차도 통일교육 관련단원 수업시수(24시간→16시간)가 대폭 축소된 실정이다.

그리고 통일관련 단원은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가 떨어지는 학년말 및 2회고사가 끝나는 시기에 집중되어 있어 효율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 도덕·윤리와 통일교육 관련 교육과정 내용체계 >

학 교 급	학년	통일교육 단위내용 비교			
		7차 교육과정	예상 수업 시수	2009개정 교육과정	예상 수업 시수
중 학 교	1	.	.	.	.
	2	<바람직한 국가·민족 생활> . 민족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 . 국가의 중요성과 국가 발전 . 올바른 애국·애족의 자세 . 남북통일과 통일실현 의지	8 시 간	<통일과 민족공동체 윤리> . 민족의 삶과 통일의 필요성 . 북한 주민과 민족애 .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13 시 간
	3	.	.	.	.
고 등 학 교	1	<통일문제와 통일한국의 모습> . 민족분단의 원인과 과정 .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의 과정 . 민족공동체의 변명과 통일한국의 모습	16 시 간	<국가와 민족의 윤리> . 세계화 시대의 민족 . 자민족 중심주의와 세계주의 . 바람직한 한민족 공동체	3 시 간

나. 범교과 학습에서 통일교육의 문제점

7차 교육과정 및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은 특정교과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아니라 전 교과 및 학교생활 전반을 통해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범교과 학습으로서의 통일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이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통일교육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범교과 학습은 통일교육을 포함해서 40여개나 된다. 40여개의 범교과 운영영역 중에서 대부분 성교육, 보건교육, 진로교육, 정보화 및 정보윤리 교육 등에 치우쳐 있으며 통일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범교과 학습에서 통일교육의 수업시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진로교육의 강화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4개의 영역 중 하나를 진로활동으로 편성했으며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역시 진로활동과 연계하여 운영된다.



이처럼 통일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서조차도 진로교육에 밀려 있다.

< 2009개정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 영역 >

2009개정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 영역
민주시민 교육, 인성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에너지교육, 근로정신 함양 교육, 보건교육, 안전교육, 성 교육, 소비자교육, 통일교육, 한국 정체성 교육, 국제이해 교육, 해양교육, 정보화 및 정보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양성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교육, 안전·재해대비 교육, 여가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다문화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교육, 논술교육, 녹색교육, 의사소통·토론중심 교육, 효도·경로·전통윤리 교육 등

< 2009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및 활동 >

영역	활동
자율활동	적응활동·자치활동·행사활동·창의적 특색활동
봉사활동	문화와 예술 활동·스포츠활동·실습노작활동·청소년단체 활동
동아리활동	교내봉사활동·지역사회봉사활동·자연환경 보호활동·캠페인 활동
진로활동	자기이해활동·진로정보 탐색활동·진로계획 학습활동·진로체험 활동

다. 중학교 통일교육 내용 및 지도상의 문제점

현행 중학교 2학년 도덕 교과서에서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분야에 나오는 많은 내용이 어려운 정치적 이념용어를 포함하여 나열식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통일교육이 주로 교사 위주의 강의중심의 주입식 교육에 치우쳐 있다보니 비판적인 토론이나 개방적인 논의 등 교육주체의 자율성이 극히 제한되었다. 이는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저하시키고, 통일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떨어뜨리는 주요한 교육적 문제 중의 하나이다.

또한, 북한의 실상을 제시할 때는 북한의 지도층과 주민을 구별하고 주민들 사이에도 사회적 일탈이 있음을 제시하여 객관적 이해를 기초로 민족적 가치의 측면에서 학생 스스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보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통일교육은 교사의 역량에 따라 실시되는 폭이 상당히 크다. 즉 교사가 통일문제에 관심이 있고, 제반 지식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냐는

통일교육의 양과 질이 크게 좌우한다. 이러한 교사의 역량에 따른 진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표준화된 자료를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라. 학교장, 교사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열의 부족의 문제

학교 통일교육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학생, 학교장, 교사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열의 부족을 들 수가 있다. 이것은 현재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당장 통일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좌절감과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통일교육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수능시험과 학교 내신 성적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고, 게다가 구태의연한 내용, 즉 내용이 재미없고, 흥미롭지 못해서라고 한다.

일선 학교현장에서 교장이나 대부분의 일반교사들은 겉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입시나 학업성취도 평가, 학생 생활지도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질 뿐 통일교육에 대한 의지와 관심은 더욱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장이 학교 통일교육에 대해서 관심과 열의가 없으면 아무리 일선 교사가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또한 교사들의 문제점으로는 교사연수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의 미흡, 교사들의 수업시수 과다로 인해 통일과 북한 연구 활동시간의 부족, 범교과적 전 교사의 통일교육 사명감 부족을 들 수가 있다.

## Ⅲ. 중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 1. 중학교 통일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이러한 현실적 조건 속에서 미래의 주인이 될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은 어떤 과목보다도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학생들이 균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북한과 통일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학교 통일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찾는 것만이 관건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 통일교육에서의 문제점을 토대로 앞으로 개선

해야할 점과 바람직한 방향을 제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학교 통일교육에서 가장 간과했던 점이 수요자(학생) 중심보다 교사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깨닫고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중학생 수준이나 관심도를 고려하는 통일교육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각종 설문조사와 통일교육 연구(시범)학교의 보고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생들은 북한의 같은 또래 학생들의 생활이나 주민들의 생활에 관심이 많으므로 북한 청소년들의 생활상을 균형적인 시각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제시하고, 모바일(M) 세대의 특성에 맞는 눈높이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통일에 무관심하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비율이 더욱 증가되어 가는 현실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교수학습 지도방안을 개발하여 학교 교육현장에 지속적으로 보급,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지정 통일교육 연구학교에서 개발한 자료를 보면, 기존의 강의식 수업을 지양하고 자기 주도적 탐구학습, 범교과적 학습,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 체험학습,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동영상 자료, 이야기 예시자료, 시사성 있는 자료 등을 더욱 개발하여 학교현장에 활용되도록 통일교육 관련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가 있어야 한다.

셋째, 앞으로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학교 통일교육 수업시수를 더 확보해 나가야 한다. 학교자율화로 20%의 증감운영이 가능하다면 현재 통일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도덕교과가 사회교과에 포함되어 운영되는 교육과정 속에서 자칫 통일교육이 소홀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학교 통일교육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통일교육은 이제 일부 교과만의 전유물이 아니므로 범교과적으로 접근하여 활성화해야 한다. 따라서 각 교과에서 실시할 수 있는 통일교육 내용을 발췌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하여 이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또한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자면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의무적으로 통일교육 영역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맞추어 현행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수업시수를 확보하고 학교 통일교육을 보다 더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전 교사의 통일교육 연수가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지속적으로 통일교육 담당 전문가를 양성하여 전국 시·도교육청 지역에 배치함으로써 '찾아가는 통일교육', '순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현장에서

통일관련 초청행사를 할 때 가끔 중학생 수준에 맞지 않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강연으로 난감할 때가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 전문가를 배치하여 깊이 있고 체계적인 학교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인적 물적 지원이 수립되어 제도화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594여 명(10.3월 기준)의 북한이탈주민(새터민)들을 활용, 그들과 학생들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이해하도록 하며 나아가 학생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기회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감상적으로 흐를 수 있는 통일관을 극복해 나가는 정책도 시도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 통일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교육의 핵심요소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것이라고 할 때, 학교 통일교육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계기교육이나 6월 한 달간 집중되는 각종 교내의 통일관련 행사 들을 범교과적이고 체험활동에 반영하여 연중 실시하고, 각급 학교 단위의 연구(시범)학교에서 산출된 바람직한 통일교육의 방안들이 한두 해 실시된 후 사장되지 않도록 학교 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열의를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 2. 중학교 통일교육 교수학습의 적절한 적용

학교 통일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인지중심, 정의중심, 행동중심(기타 방법 포함)교수학습 방법 등이 있는데 이를 적절하게 적용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o 인지중심의 통일교육 교수 학습방법

**PMR(Plus minus reconstruction)** : 통일문제나 정책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하도록 토론함.

미완성이야기, 브레인스토밍, 신문 활용하기(NIE), 설문조사 후 발표, 직소우 학습, 집단탐구 발표, 퍼즐게임, 전자토론, 전자우편(e-mail)사용하기. 통일주제 4행시쓰기, 정보사냥대회

### o 정의중심의 통일교육 교수 학습방법

광고나 만화 활용하기, 녹음데이프 활용하기, 통일영상자료 활용, 역할놀이, 놀이, 문학작품의 감상, 마인드 맵(mind-map), 동시와 노래 이용하기, 통일 및 북한관련 영화보기, 북한 사정이야기 하기, 북한의 예술 알아보기

○ 행동 중심의 통일교육 교수학습방법

남북한 학생 교류하기, 판문점 등 현장견학하기, 북한 학생들에게 편지쓰기, 통일응변대회, 남북한 스포츠교류, 통일포스터, 통일지도 만들기, 통일여행 안내장 만들기, 북한 관광가이드 만들기, 통일장기자랑 대화, 북한 바로알기 게시판 활용하기 등

위와 같은 방법의 적절한 적용을 위해서는 통일교육 전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통일관련 연수기회를 보다 확충하여 교수·학습 방법의 심화와 개발을 돕도록 해야 할 것이다.

## IV. 맺는 말

21세기 통일한국을 이끌어 나갈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 중 “통일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통일에 관심이 없다.” 등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 내지는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 이것은 학교일선에서의 통일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간 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론정립을 해왔고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점과 대안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오히려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줄어들고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선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의 문제점은 학교장의 통일교육 의지 부재, 그리고 교사들의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이다. 아무리 교사가 통일교육을 하고 싶어도 학교장이 이런 여건을 조성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 교사들도 일부 도덕·사회·국어과 교사들만이 통일교육을 하는 것으로 당연히 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폰 바이제커 전 독일 대통령은 “독일의 분단극복을 위한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독일 모든 교육자의 도덕적 의무”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 말은 분단

시대를 넘어 평화와 통일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교육자의 의식과 교육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처럼 교사가 전문성과 관심을 가지고 통일교육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교육적 효과는 확연히 달라진다. 이제 통일안보 교육은 특정 교과에서만이 아니라 전 교사가 범교과적으로 수행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래 통일일꾼으로 거듭날 학생들이 균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북한·통일 문제를 인식하고 통일에의 신념과 의지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통일교육 기본계획 아래 통일교육이 전개되도록 학교장과 전 교사가 활발하게 통일교육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미래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통일역량을 함양시켜주는 것이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고, 통일한국의 비전이며, 전 교사의 사명이고 책무라고 여기며 이 글을 마무리 한다.

< 끝 >

## < 참고 문헌 >

1. 김동수 외, 통일문제 이해(2010), 통일교육원, 2010.
2.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지침서(2010), 통일교육원, 2010.
3. 통일부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발전 전북워크숍 자료, 2010.
4. 통일부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발전 충북워크숍 자료, 2009.
5. 교육과학기술부,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2009.



# 고등학교 통일교육 및 탈북학생 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향

최 남 현  
인천남동고등학교 교사



# 고등학교 통일교육 및 탈북학생 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향

최 남 현(인천남동고등학교 교사)

- I. 시작하며
- II. 고등학교 통일교육 및 탈북학생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 III. 고등학교 통일교육 및 탈북학생 교육의 개선 방향
- IV. 맺는 말

## I. 시작하며

지난 10년 동안 남북한을 둘러싼 통일환경은 급격하게 변화되어 왔다. 2010년 현재도 예외는 아니어서 남북한을 둘러싼 대내외적 통일환경은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북한은 천안함을 공격하여 폭침시키고 연평도 전체에 대한 무차별 포격을 하는 등 국지적인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북한의 무모한 무력도발 이외에도 북한 핵문제,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후계 권력세습 체제 구축,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된 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남북한의 통일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의 통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더라도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남북한 신뢰회복의 토대위에서 이루어지는 평화통일이다. 현재의 분단 상황을 평화적이며 안정적인 체제로 전환하고, 남북한 화해협력을 추진하면서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 통일교육의 목적도 학생들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도록 하는 것이다. 분단의 고통을 몸소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분단의 장기화에 따른 민족적 폐해를 인식시키고 통일한국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일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등학교 현장의 통일교육 현실은 점점 통일에서 멀어져가고 있는 형편이다. 아마 2011년 고등학교 현장에서의 통일교육 현실은 2010년보다도 더 답답하고 어두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통일교육의 여건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요인은 정치적 고려와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 중의 하나는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부족이나 부정적 인식과 관련된 문제이다. 고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다른 하나의 요인은 관리자와 전문직, 교사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 부족과 통일교육에 대한 열의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 II. 고등학교 통일교육 및 탈북학생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 1. 고등학교 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 가. 정치적 고려와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른 실태와 문제점

##### 1) 정치적 고려에 따른 통일교육의 변화와 문제점

정부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대북정책과 남북 경제협력의 방향이 크게 변화되는 것처럼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도 정부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적극적으로 강조되어 진행되기도 하고 소극적인 입장에서 진행되기도 한다. 이렇게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이 정부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변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정부의 정치적 입장에 상관없이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 통일교육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2)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른 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교육정책의 변화와 교육과정의 내용에 따라 학교 통일 교육이 강조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는 변화가 있어 왔다. 하지만, 2011년부터 적용되는 미래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통일 교육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2011년부터 적용되는 미래형 교육과정에서는 지금까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서 필수과목으로 강조되어 왔던 도덕과목이 사회교과에 통합되고 필수 선택과목에서 제외된다. 일선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교과 집중 이수와 선택과목수 제한에 따라 도덕과목을 채택하지 않는 학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도덕 교과서의 교육과정 내용체계에서 통일교육 관련 단원이 1개의 소단원으로 대폭 삭제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도덕과목만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타 교과에서 통일에 접근하는 관점은 통일에 대한 가치관이나 당위성의 제고보다는 관련 지식을 제공하는 학습위주의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교과를 선택하지 않는 학교의 증가와 도덕 교과서의 내용체계 개편에서 통일교육 관련 내용이 대폭 삭제되었다는 점은 양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에서나 통일교육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 나.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부족과 무관심에 따른 실태와 문제점

고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과 관련된 문제이다. 통일과 관련된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통일을 해야한다는 의식은 증가하고 있지만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측면에서는 합리적 사고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했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2010 통일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국민의 비율이 전년도 조사에 비해 3.2% 증가한 59%로 나타났다. 반면에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국민의 비율은 전년도의 25% 비해 약 5% 정도 줄어든 20.6%로 나타났다.<sup>1)</sup>

1) 정은미, “이중적 통일인식과 대북인식의 북한효과”, 『2010 통일의식조사 발표 - 통일의식·통일론·통일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학술심포지움, 2010.9.17, p.6

〈표 1〉 통일의 필요성(%)

	매우 필요	약간 필요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없음	전혀 필요없음
2008년	25.9	25.7	23.4	19.6	5.4
2009년	24.7	31.1	23.6	16.2	4.4
2010년	27.3	31.8	20.4	16.6	4.0

반면에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중·고등학생 1,083명을 대상으로 『2010 청소년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중·고등학생은 70.3%로, ‘통일이 필요 없다’는 응답은 29.7%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통계조사 결과로만 보면 고등학생들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어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직접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면 학생들은 통일을 해야 한다고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대답하는 경향이 강하다.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남북한 사람들의 통합, 남북한 교육이념의 차이로 인한 갈등 등의 문제를 제시하면 ‘통일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거나,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자신의 입장을 바꾸어 말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통일의식 조사에서는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같은 민족이니까’가 43%로 여전히 1위였지만, 2008년 57.9%, 2009년 44%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그 대신 ‘전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를 선택한 응답자가 2008년 14.5%, 2009년 23.4%에서 올해 24.1%로 늘었고,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를 택한 응답자도 2008년 17.1%, 2009년 18.6%에서 올해 20.7%로 늘었다.2)

반면에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중·고등학생 1,083명을 대상으로 『2010 청소년 통일의식조사』에서는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청소년들은 ‘국력강화’(28.4%), ‘이산가족문제해결’(24.7%), ‘한민족이기 때문’(24.6%), ‘전쟁위협해소(20.3%)’ 등의 의견을 냈다.

2) 정은미, “이중적 통일인식과 대북인식의 북한효과”, 『2010 통일의식조사 발표 - 통일의식·통일론·통일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학술심포지움, 2010.9.17, p.7

〈표 2〉 통일의 이유 (%)

	같은 민족이니까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선진국이 되기 위해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	북한주민도 잘 살기위해
2008년	57.9	14.5	17.1	6.8	2.8
2009년	44.0	23.4	18.6	8.5	4.2
2010년	43.0	24.1	20.7	7.0	4.0

통계조사 결과로만 보면 고등학생들은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현실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직접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통일을 왜 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면 학생들의 대답은 통계조사 결과처럼 현실적이지 못한 경향이 강하다. 북한에 자원이 많기 때문이라든가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통일의 비용이라든가 경제협력, 이질성 극복을 위해서라고 이유를 제시하는 합리적 가치 판단 능력은 부족한 편이다.

#### 다. 관리자, 전문직, 교사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과 열의의 부족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2009년 실시한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각급 학교의 통일교육 편성시간 및 교육시간 시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학교에서 통일교육은 연 평균 약 6.5시간 실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행 교육과정 중 통일교육 연간 편성시간 초등 10시간, 중등 12시간, 고등 17시간보다 현격하게 적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로는 통일관련 내용이 교과서의 마지막 단원에 편성되어 있어 교육시 생략되거나, 대입 수능시험에서 통일관련 문항 출제빈도가 낮아 교사와 학생 모두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 때문인 것도 있지만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학교의 관리자, 교육청의 전문직, 학교 교사의 통일에 대한 의식과 열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통일교육이 활성화되게 하려면, 교과시간에만 국한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보다 다양한 체험학습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학기 중 재량·특별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학교별로 통일관련 각종 행사(글짓기, 사생대회 등)를 개최한다거나, 판문점, 통일전망대, 통일관, 호국 사적지 등 통일안보현장을 견학하는 통일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통일교육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 관리자와 전체 교사의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고등학교의 교육현실은 학력 향상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비교하여 학교의 교육력을 평가하고 국가 수준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일선학교의 교육력을 평가하고 예산을 차등으로 배정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와 교사가 내실 있는 통일교육을 준비하고 계획하여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부 관리자들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을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이념교육, 혹은 의식화 교육으로 오해하여, 통일교육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귀찮은 교육 정도로 인식하여 통일 교육 시간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통일교육을 직접 담당해야 할 교사들도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대체로 승진 가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영재·수학·과학 등 과목에 치중하고, 통일교과에 대해서는 열의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선 학교현장에서 통일교육을 하는 경우, 교과서 중심의 강의식·주입식 수업으로 인하여 학생들은 통일문제에 대하여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초·중·고 수준별로 적합한 표준화된 통일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도 부족하고, 학생들에게 친숙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들도 많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2. 고등학교 탈북학생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 가. 고등학교 탈북학생 교육의 실태

최근 들어 북한이탈주민<sup>3)</sup>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1월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자 수는 2만 50여명으로 북한이탈 주민의 수 2만 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지난 2002~2005년 사이에 매년 1천여 명씩 증가하던 것이 2005년 이후에는 입국자수가 매년 2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1999년 누적 탈북자 숫자가 1천명을 넘어서던 뒤 8년 뒤인 2007년 1만명을 돌파했다. 그리고 불과 3년 만에 2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내 탈북자의 숫자는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3)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적인 용어이다. 지난 정부에서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학생이나 청소년 집단을 지칭할 때 탈북 학생, 탈북 청소년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현재 통일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북한을 탈출한 북한이탈 청소년의 숫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아동 청소년을 포함하여 대학단계까지의 취학연령에 해당하는 0세부터 21세까지 주민들은 그 동안 20%정도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보면 451명으로서 17.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집계에 의하면 18.1%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을 비롯하여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의 초·중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탈북학생이 국내 전체 초·중·고교(인가·미인가 대안학교 포함)에 진학하는 학생 수는 2006년 474명, 2007년 772명, 2008년 966명, 2009년 1143명, 2010년 1417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탈북 초·중·고교 학생 수는 4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정부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는 전국에 2곳(여명학교, 한겨레학교) 밖에 없어 일반학교나 비인가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해 중도 탈락하는 탈북학생 수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탈북학생의 중도 탈락률은 남한 일반학생의 5배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탈북청소년들의 중·고등학교 중도 탈락률이 일반 학생들의 7.3배에 해당하는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원혜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탈북 청소년의 정규과정 중도탈락률은 중학교의 경우 8.5%로 일반학생이 1.2%인데 비해 7배 높았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9.1%로 나타났다. 탈북학생의 중·고등학교 중도탈락률은 지난 2006년 10.9%에서 2007년 17.9%, 2008년 11.0%, 2009년 8.8%로 비록 줄어드는 추세이나 일반학생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나. 고등학교 탈북학생 교육의 문제점

청소년기는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정체성 확립의 발달적 과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인생주기에 있어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변화로 인해 심각한 혼란을 겪는 어려운 시기이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전혀 다른 문화, 가치, 사회구조에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탈북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또래관계와 정체성 형성의 장애로 인한 학교적응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있다. 반세기 이상의 남북한 단절로 인한 언어소통의 어려움, 교과과정 및 교수법의 상이함, 기초학습 능력의 부족, 학령과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또래관계 형성

의 어려움, 교사의 편견과 무관심, 그리고 자아정체감의 혼란 등에서 오는 어려움들이다.

통일부는 탈북청소년들의 정규과정 중도탈락률의 원인으로 취학연령의 차이, 남북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의 차이, 언어 차이, 친구 사귀기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 정체성 결여 등을 제시하였다.

### 1) 남한 학생들의 태도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의 부족

탈북학생들은 학교 적응과정에서 자신이 탈북자라는 사실을 절대 밝히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토론자가 담당했던 탈북학생 역시 자신이 탈북학생이라는 사실과 상담내용이 밝혀지지 않기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탈북학생들을 대하는 남한 학생들의 시각과 태도에 편견과 차별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다. 일단 탈북학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남한 학생들은 무시하거나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탈북학생교육 프로그램에는 남한 학생들의 태도 개선을 위한 내용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남한 학생들의 태도 개선을 위한 노력보다는 탈북학생들이 잘 적응하도록 하는 내용에 치우쳐 있다. 2009년 통일부에서 통일교육시범학교나 탈북학생교육 시범학교에 지원한 학습자료 목록에는 북한의 오늘날의 정치 경제 사회적 실태나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것들 위주로 채워져 있을 뿐, 정작 탈북청소년들의 현실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인식 개선 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난해 수립한 '탈북청소년교육 지원계획'에도 1:1 멘토링, 보충교육, 상담 프로그램, 지도교사 양성 등이 있으나 마찬가지로 남한 학생들의 인식 개선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남한 학생들에게 북한의 현실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탈북학생들과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남한 학생들의 탈북학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차별과 무시, 따돌림 등의 행동이 탈북학생들의 학교적응에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토론자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탈북학생들이 동료학생들과의 이해소통에 문제가 있어 학교를 자퇴한 사례가 있었다.

## 2) 자아 정체성과 존중감 확립 교육의 부족

탈북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탈북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은 전체적으로 보통수준 이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이는 남한학생의 자아존중감 수준과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정도이다. 또한 탈북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포부 수준이 높으며 열의도 높다. 학부모의 희망교육 수준도 매우 높은 편이다.<sup>4)</sup> 이러한 자료를 보면 탈북학생들에게 자아존중감과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탈북학생들은 남한 학생에 비해 매우 힘든 조건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경제적 빈곤의 문제를 포함하여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가 적지 않아 발생하는 동료학생들과의 갈등 문제 등 본인 스스로 이겨나가야 할 힘든 조건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모든 과목에서의 학력부진 문제, 남북한의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갈등의 문제, 남한 학생들의 탈북학생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문제 등 여러 요소들이 중첩되어 잠재적인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조건 속에서 학교생활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활해 가고 있는 탈북학생들을 만나서 직접 대화를 하다보면 자신의 꿈이나 이상을 포기하고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고민과 동료 학생들과의 갈등으로 학교생활에서의 불안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으며, 탈북학생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소한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고 취업이나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탈북학생들의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탈북학생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꿈과 비전을 목표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성공적인 롤 모델을 제시해주는 자아존중감 및 정체성 확립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탈북학생 교육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3) 탈북학생 교육 지원체제의 유기적 연결의 부족

탈북학생 교육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탈북학생 교육 지원체제의 유기적 연결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지원체제와

4) 한만길 외, 탈북학생의 교육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9. p.7



지방정부의 지원체제, 민간단체의 지원체제 간의 유기적 연결이 미흡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탈북학생의 멘토링 지원을 놓고 탈북자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멘토링 지원과 시청에서 제공하는 멘토링 지원,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멘토링 지원,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멘토링 지원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생들은 어디에서 지원하는 멘토링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한정된 시간에 멘토링 지원을 통해서 기초학력을 높이려는 계획은 좋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아서 학생들을 혼란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 결국 학생들은 자신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멘토링 지원을 선택하게 되어 학교에서 제공하는 멘토링 제도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탈북자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멘토링제 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신의 가정에 제공되는 다른 지원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멘토링 운영에 참여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일부 민간단체의 탈북학생 지원의 경우에는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완벽하게 구성되지 않은 부실한 내용의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제공되는 학습프로그램과 내용을 검토해보면 남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내용과 똑같이 구성되어 있어서 탈북학생들의 학습적응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지식위주의 접근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 Ⅲ. 고등학교 통일교육 및 탈북학생 교육의 개선방향

#### 1. 고등학교 통일교육의 개선방향

가. 정치적 고려와 교육정책의 변화를 초월하는 통일교육

##### 1) 정치적 고려를 초월하는 통일교육

정부의 정치적 입장과 고려에 따라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으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통일교육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이나 고려와 상관없이 소신에 따라 실시

되는 통일교육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변화되는 통일교육 보다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도록 하는 통일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 2) 근시안적인 교육정책의 변화를 초월하는 통일교육

교육정책의 변화와 교육과정의 내용에 따라 근시안적으로 개편되고 축소되는 통일교육이 아니라 통일 이후의 시대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통일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2011년부터 적용되는 미래형 교육과정에서 학교 통일교육이 크게 위축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선학교에서는 통일에 대한 가치관과 의식을 길러줄 수 있는 도덕교과를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나. 학생들의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 및 보급

고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의 부족과 합리적 사고능력의 부족이다. 일반적으로 고등학생들은 학력이나 진학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적게 마련이다.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통일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이런 학생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과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남북한 상호이해 교육은 통일교육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다. 관리자와 전문직, 교사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 제고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일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 중의 하나는 학교의 관리자, 교육청의 전문직, 학교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의식과 열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고등학교의 교육현실은 학력 향상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전국 연합학력평가 성적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일선학교의

교육력을 평가하고 예산을 차등으로 배정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실 있는 통일교육을 준비하고 계획하여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관리자, 교육청의 전문직, 학교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의식과 열의가 필요할 것이다.

## 2. 고등학교 탈북학생 교육의 개선방향

### 가. 남한 학생들에 대한 탈북학생 이해교육의 강화

현재까지의 탈북학생교육의 방향은 탈북학생들이 남한 사회나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내용에 치우쳐 있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들 탈북학생들을 대하는 남한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의 문제라는 점이다. 탈북학생들의 중도탈락 비율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남한 학생들과의 이해관계와 소통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특히, 탈북학생들을 대하는 남한 학생들의 시각과 태도에 드러나는 편견과 차별이 문제이다. 일단 탈북학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남한 학생들은 탈북학생들을 무시하거나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탈북학생교육 프로그램에는 남한 학생들의 태도 개선을 위한 내용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남한 학생들에게 북한의 현실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탈북학생들과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 나. 자아 정체성과 존중감 확립 교육의 강화

탈북학생들은 경제적 빈곤 문제, 탈북과정에서 가정의 해체로 인한 문제, 남한 학생들과의 갈등 문제,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제, 주요 과목에서의 학력부진 문제, 남한학생들의 부정적 인식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 이러한 문제를 감당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아 존중감이나 정체성을 심어주는 교육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구상찬 의원(한나라당)과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망한 탈북자 가운데 자살자 비율은 2008년 10.35%, 2009년 16.3%를 기록했다고 한다. 올해는 6월 30일 현재 8.7%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한국인 평균 자살률 6.24%(2009년 기준)에 비해 서도 2.7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탈북학생들의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탈북학생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꿈과 비전을 목표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성공적인 롤 모델을 제시해주는 자아 존중감 및 정체성 확립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 다. 탈북학생 교육 지원체제의 유기적 연결 강화

탈북학생 교육을 지원해 주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프로그램은 많이 있지만 지원기관 간의 유기적 연결을 위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못한 것은 예산의 낭비나 중복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적절하게 해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탈북학생 교육 지원체제를 위해서는 통일부, 통일교육원, 시청이나 도청, 시·도교육청, 탈북자 지원센터, 민간단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IV. 맺는 말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의식과 통일의 필요성 및 이유에 대한 합리적 사고능력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2009년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통일에 가장 장애가 되는 나라로 미국 42.7%, 북한 21.1%, 일본 14.8% 순으로 답변하였으며,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무관심하거나 인식이 부족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을 찾아보면, 학교와 사회에서 추구하는 입시 위주의 교육현실, 정치적 입장과 교육정책에 따라 급변하는 통일교육의 방향, 통일교육과 관련된 관리자, 전문직, 교사들의 이해와 관심, 열의의 부족, 통일교육 방법 및 교재의 미흡, 국가·사회에서의 청소년 통일교육에 대한 지원 미흡·투자 소홀 등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거나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려면 이와 같은 원인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탈북청소년들은 남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 언어문제, 외로움, 경제사정 등 성인 탈북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더해 학업과 진로 고민, 친구들과로부터 따돌림 등의 문제가 중첩되어 학교 적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이들은 탈북 과정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5~6년 동안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 남한에 들어와서 학교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탈북 학생들은 자신이 탈북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남한 학생들이 무시하거나 따돌리기 때문에 북에서 왔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

탈북학생 교육의 방향은 탈북학생들의 남한 사회나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적응교육과 남한 학생들의 탈북학생 이해교육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탈북학생 교육 프로그램은 남한 학생들의 탈북학생 이해와 태도 개선을 위한 내용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탈북학생들이 남한 학생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여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사회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남한 학생들이 탈북학생을 이해하는 교육을 통하여 상호간 교육적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탈북학생 교육이 필요하다.

<끝>

## < 참고 문헌 >

1. 박찬석 외, 통일 교육론, 백의, 2000.
2. 백혜정 외,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 대책 연구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3. 오은순 외,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2007.
4. 오은순 외, 델파이 조사를 활용한 교과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방안 모색, 청소년학 연구, 2009.
5. 장문강,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다문화교육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청소년문화포럼, 2008
6. 정병호외, , 경기도 교육청, 2006.
7. 정은미, “이중적 통일인식과 대북인식의 북한효과”, 『2010 통일의식조사 발표-통일의식·통일론·통일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학술심포지움, 2010.
8. 추병완 외 8인, 통일교육, 도서출판 하우, 2002.
9.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 2009.
10.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지침서(일반용)」, 2009.
11.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2009.
12.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 이해」, 2009.
13. 통일부, 통일백서, 2009.
14. 한국교육개발원,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기관, 통일교육 실태 조사와 활성화 방안연구, 2000.
15. 한만길 외, 탈북학생의 교육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9.
16. 한만길,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교육과학사, 2001.
17. 허문영, 남북통일의 과제와 통일국가의 미래상, 2008.



# 참 고 자 료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자료방' 메뉴) 등재 통일교육자료 목록([www.uniedu.go.kr](http://www.uniedu.go.kr))

제 목	발간년도	주 요 내 용	대상구분	고교 도덕 차시 구분
통일문제이해	2009.04	통일방안, 대북정책, 남북관계, 국제질서, 통일환경	교사용	전 차시 공통
북한이해	2009.04	북한 정치·외교·군사·경제·사회·문화 분야별 실상	교사용	
자주 묻는 통일 이야기 50	2009.02	통일정책, 남북관계, 북한실상 관련 주요 사항	교사용	
알기 쉽게 풀어 쓴 통일 이야기	2007.01	분단의 원인과 통일의 필요성, 통일방안과 남북관계, 분단국 사례 등	교사용	
분단의 20세기 통일의 21세기 [ 동영상, 28분 ]	2005.03	한반도 분단과정, 남북관계 발전현황, 통일의 비전 등을 문답식으로 설명	공통	
한라에서 백두까지(플래시게임)	2008.12	문제를 풀면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가기	초/중	
새 The bird [ 동영상, 20분 ]	2006.05	남북의 조류학자 원홍구·원병오 부자의 사연을 각 색(아동·청소년용 애니메이션)	초/중	민족분단의 과정
가자미의 눈물 [ 동영상, 14분 ]	2007.07	이산가족 할아버지의 고통을 통해 나이 어린 손녀가 통일의 필요성을 깨닫게 됨(아동·청소년용 애니메이션)	초등	
가자미의 눈물 [ 동영상, 14분 ]	2007.07	가자미의 눈물 자막·수화 삽입본(청각장애인용)	초등	
가자미의 눈물(영어판·일어판) [ 동영상, 14분 ]	2008.12	가자미의 눈물 영어·일어 자막 삽입본(재외동포용)	초등	
북한의 교육제도 [ 동영상, 22분 ]	2002.11	북한의 학제, 교과목, 학교생활 등	공통	민족분단과 남북 사회문화 비교
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변화	2006.3	북한의 교육정책, 학제, 김정일시대 교육의 특성	교사용	
북한 학생들의 학교 생활[ 동영상, 21분 ]	2008.11	북한 학생의 일과, 교육과정, 조직생활, 방과 후 생활	공통	
북한 주민들의 하루 생활[ 동영상, 20분 ]	2008.11	북한 주민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조직생활 등 하루일과	공통	
이슬이의 북한 방문기 [ 동영상, 23분 ]	2005.06	이슬이가 아버지와 함께 북한을 방문하여 겪는 이야기(아동·청소년용 플래시 애니메이션)	초등	
게임 소녀와 평양 소년(만화)	2007.12	남북의 소년소녀가 게임을 통해 만나고 친해지면서 통일을 염원하게 됨(아동·청소년용 만화)	초/중	
북한의 선거제도 [ 동영상, 31분 ]	2004.02	제11기 최고인민회의의 선거과정을 통해 본 북한의 선거제도	공통	
남북문화이해지 [ 동영상, 80분 ]	2002.12	문화이해지 기법을 이용한 통일교육 영상자료	공통	
북한드라마를 통해 본 북한 주민의 가치관 변화[동영상, 33분 ]	2003.11	조선중앙TV 드라마를 통해 본 북한 주민의 가치관 변화상	공통	
북한 가요에 나타난 여성상 [ 동영상, 23분 ]	2002.11	북한 가요 7편을 통해 본 북한의 여성상, 북한 여성들의 삶을 규정하는 제도 및 실제 생활모습	공통	
북한만화영화의 이해 [ 동영상, 47분 ]	2004.02	북한 만화의 주제별 유형분류, 수업자료 활용경험 등	공통	
북한주민의 결혼과 가정생활 [ 동영상, 36분 ]	2004.02	북한 주민의 연애, 결혼, 육아, 가정생활 및 경제난 이후 변화	공통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생활에 나타나는 북한 언어정책의 영향	2003.12	북한이탈주민의 우리말 인식현황, 해방전후 한반도 언어생활환경, 로동신문 <우리말다듬기지상토론> 분석	교사용	
북한 농업개혁의 현황과 전망	2004.05	사회주의농업의 이론, 제도, 개혁사례, 북한의 농업시스템 및 개혁의 조건과 과제 등	교사용	
먹거리를 통해 본 북한 현실	2005.02	북한의 식량난, 주식, 먹거리 문화	교사용	
남북한의 역사인식 비교	2005.09	북한 역사관의 특징, 남북한 역사인식 비교, 남북교류, 통일역사교육의 과제	교사용	
남북한 예술 어떻게 변화하였나	2005.09	남북 예술의 특징, 분단 후 변화, 남북 교류현황	교사용	
북한경제 어디까지 왔나	2005.01	체제전환국의 경제개혁 사례, 북한의 경제개혁개방정책 현황과 성과	교사용	
북한의 에너지 사정, 어제와 오늘	2007.02	북한의 에너지정책, 공급구조, 수급현황	교사용	

제 목	발간년도	주 요 내 용	대상구분	고교 도덕 차시 구분
북·중 변경무역과 북한의 시장실태	2007.01	북중 변경무역, 북한의 시장	교사용	민족분단과 남북 사회문화 비교
정보화시대 북한의 정보화 수준	2006.09	북한의 IT중시정책, 정보화 현황 및 실태, 정보통신 부문 남북교류협력	교사용	
북한과학기술의 이해	2007.01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체제, 계획, 수준, 특징, 남북협력	교사용	
북한의 IT 현황과 전망 [ 동영상, 23분 ]	2002.11	북한의 정보산업 육성배경 및 현황	교사용	
남북한 IT 용어 비교	2005.09	북한의 IT 산업현황, 남북한 IT 용어 비교	교사용	
북한의 의료실태	2007.02	북한의 고려의학체제, 의료교육,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실태	교사용	
북한의 관광자원 실태와 전망	2007.12	북한의 관광환경, 정책, 기구, 금강산·개성·백두산 관광	교사용	
북한의 체육 실태	2008.07	북한의 체육정책, 체육교육 및 선수양성, 조직, 시설, 대회, 국제교류 및 남북교류	교사용	
북한의 문화재 실태	2008.12	북한의 문화재 정책·관리실태·현황, 남북교류 방안	교사용	
남북한 물류망 구축: 그 실상과 과제	2007.02	북한의 주요 운송수단, 남북 교통망 연결사업 현황, 과제와 전망	교사용	
북한의 환경정책과 실상	2007.01	북한의 환경관, 정책, 실태, 남북교류현황	교사용	
북한법을 보는 방법	2006.04	북한법에 나타난 북한체제 및 사회의 변화상, 북한법의 이질성 및 이중성과 올바른 법해석	교사용	
북한의 법제 정비 동향과 특징	2007.12	북한의 법체계, 규범과 현실, 입법동향, 법제정비 평가와 전망	교사용	
북한의 대남전략	2009.12	북한의 대남전략 기초와 노선, 전개양상, 향후전망	교사용	민족분단 극복 방향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들의 갈등과 사회통합	2002.12	통일독일 주민 간 심리적 갈등 현실을 통해 제도적 통일을 넘어서 사회문화적 통일의 시사점 도출	교사용	
갈등을 넘어 통일로	2004.09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독일통일 전후 갈등 및 통합 사례, 남북통합과정과 공동체의식 연구	교사용	
한반도 평화정착과 유럽연합의 교훈	2005.03	유럽통합 과정, EU 조직체계,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교사용	
독일통일 20년 : 현황과 교훈	2009.12	독일의 통일과정과 분야별 통합현황	교사용	
미래를 위해 남겨 놓은 과거, DMZ	2010.07	DMZ에 얽힌 과거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교사용	
DMZ에서 바라본 분단과 통일 [ 동영상, 20분 ]	2010.10	6.25 전쟁의 교훈과 분단현실 이해, 통일의지 함양	공동	
21C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2005.05	국제질서의 변화와 동북아, 한반도와 국제정치, 주요 쟁점과 전략방향	교사용	우리의 대내외 적 통일환경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 동영상, 9분 ]	2008.11	상생공영정책의 비전, 추진원칙, 중점 추진과제 등	교사용	남북한 통일 정책 비교
상생공영 사행시 모음집	2008.12	「상생공영 4행시 짓기」 공모전 모음집 수상작 및 상생공영정책 10문 10답	중/고	
헤미의 행복통일한국 [ 동영상, 11분 ]	2007.12	헤미라는 고등학생이 꿈을 통해 통일한국의 미래를 상상하게 됨(청소년용 애니메이션)	중/고	통일한국의 미래상
헤미의 행복통일한국 [ 동영상, 11분 ]	2008.06	헤미의 행복통일한국 수화·자막 삽입본(청각장애인용)	중/고	
헤미와 북한에서 온 친구 [ 동영상, 7분 ]	2009.12	헤미와 탈북청소년 승준의 이야기	중/고	
화해·협력시대의 여성 통일교육	2002.06	여성 통일교육의 필요성, 교육내용, 방법	교사용	기 타
통일·남북관계 사전	2004.07	통일, 남북관계 관련 주요용어 및 개념	교사용	
이론으로 보는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2005.07	각종 정치경제학 이론으로 남북관계 분석	교사용	
대북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	2003.12	대북협상에 대한 관점, 특수성과 어려움, 북한의 협상행태, 남북 협상 문화 등	교사용	
남북관계발전의 법적 이해	2005.06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법해석학적/법사회학적 접근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인식전환의 필요요소	교사용	
남북 인적교류 현황과 실상	2007.02	남북 인적교류 정책, 현황, 의의	교사용	
2008 통일교육 웹진(Unizine)	2008.12	2008년도 월간 통일교육 웹진(Unizine) 종합본	교사용	